

‘언어와 언어 사용’에 대한 자각

김 지 흥*

0.

이 글에서는 필자가 ‘언어와 언어 사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소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그 목적은 학생들에게 언어와 언어 사용의 본질을 깨닫고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필자 스스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정하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언어 본질에 대한 탐구를 ‘언어 자각’(language awareness)이나 ‘언어 지식’이란 말로 표현해 왔다.¹⁾ 그렇지만 필자는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자각만으로는 모자라다고 본다. 언어 교육 현장과 관련하여 ‘언어 사용’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에게 광선의 모습이 떠오른다.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으로 파장이 더 긴 적외선 띠 흐름이 있고, 오른쪽으로 파장이 더 짧은 자외선 띠 흐름이 있다. 가시광선이 언어 표현에 비유될 수 있다면, 그 좌우에 있는 광선이 각각 기본 개념 및 복합적 실생활(=복합 사건들의 연결)에 비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시광선의 띠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띠 흐름과 자외선 띠 흐름이 더 기본적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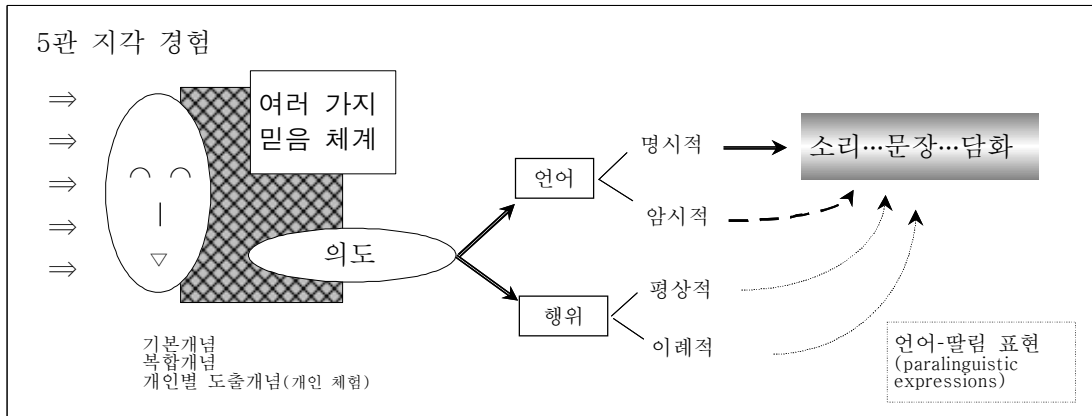
*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이 글은 2006년 12월 15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정기 학술 발표회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 필자의 발표에 토론을 해 주신 전북대 윤석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거기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들은, 이 글을 수정하면서 답변 형식으로 각주에 집어넣어 두었음을 밝혀 둔다.

- 1) 영국 쪽에서 처음 이런 흐름이 생겨났다. 중요 문헌은 영국 모국어 교육을 감사한 ‘불력 보고서’(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1975 『*A Language for Life*』 HMSO)와 유럽 연합(Council of Europe) 언어정책 보고서로서 기능-개념 중심 교과과정(Functional-Notional Syllabus)으로부터 싹튼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육(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다. 범-교과 도구 성격과 참된 실생활 자료 성격이 여기서부터 싹트게 된다. ‘언어 자각’은 호킨즈(Eric Hawkins)가 처음 썼다(Hawkins 1984, 1989 수정 『*Awareness of Language: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 Press). 제 2언어나 외국어 교육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 『*Language Awareness*』 (<http://www.lexically.net/ala>)도 있다. 언어 자각과 관련된 후속 문헌으로는, 페어클릴 편(Fairclough 1992) 『*Critical Language Awareness*』 (Longman), 제임스 및 게릴 편(James and Garrett eds. 1992) 『*Language Awareness in the Classroom*』 (Longman), 빈 리어(van Lier 1995) 『*Introducing Language Awareness*』 (Penguin Books), 화일 외(White et al. 2000) 『*Language Awareness: A History and Implementation*』 (Amsterdam Univ. Press), 앤드루즈 및 스완 편(Andrews and Swan eds. 2006) 『*Teacher Language Awareness*』 (Cambridge Univ. Press)이 있다. 언어 지식에 대해서는 Carter ed.(1990)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the Curriculum*』 (Hodder & Stoughton)가 인용된다. 이 책의 원래 형태는 영국의 언어 정책 수립에 대한 용역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 리어 및 코어슨 편(van Lier and Corson eds. 1997)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 6): *Knowledge about Language*』 (Kluwer Academic)에 있는 글들도 언어 교육에서의 언어 지식을 다루고 있다. 한편 우리의 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영국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비판 보고서가 중요하다. 1975년 불력 보고서·1988년 킹먼(Kingman) 보고서·1990년 콕스(Cox) 보고서를, 필자는 ‘3대 보고서’라고 부른다. 특히 콕스 교수는 모국어 교육에 대한 책자를 더 펴냈는데, 현재 영국 모국어 교육에서 시행되고 있는 4기능 중심의 언어 교육을 정면으로 공격한다. Cox(1991) 『*Cox on Cox: An English Curriculum for the 1990's*』 (Hodder & Stoughton)와 Cox(1995) 『*Cox on the Battle for the English Curriculum*』 (Hodder & Stoughton).

I.

‘언어’를 살펴보려면 우선 언어를 낳는 우리 인간의 일상 경험 및 그 경험들의 짜임새를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이다. 이는 언어로 포장된 영역 이전의 것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가 적절치 않은 내용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 거점 개념을 이어 놓기 위해서, 단면 사진처럼 몇 가지 관련되는 요소만 지적하여 다루기로 한다.



<그림 1> 일상 경험과 개념, 그리고 의도의 구현으로서 언어 및 행위

먼저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5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일상경험 덩어들과 그 경험들을 유의하게 짜엮어 놓은 ‘믿음 체계’이다. 경험들을 받아들여 우리의 기억 창고 속에 짜엮어 놓기 위해서는,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몇 가지 거르개를 통과해야 한다. 먼저 유전적으로 주어진 기본 개념들이 있다(이를 단일 개념으로 부를 수 있음). 예를 들면, 우리가 맛을 느끼는 감각 기관은 다섯 종류의 수용기로 이뤄져 있다. 맵고 짜고 달고 시고 쓴 맛을 느끼는 수용기이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받아들여 기억 창고 속에 차근 차근 쌓아 놓는 일을 하게 된다. 이때 가동되는 것이 기본개념을 형성하는 거르개들이다.

또한 일상 경험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짐에 따라, 각 개념들은 하위 구분되거나 또는 개념들 사이에 결합된 모습으로 복합 개념을 만들어 가게 된다(이를 복합 개념 형성이라 부르기로 함). 이 복합 개념은 언어의 특성에 따라, 또는 한 사회의 집단 경험에 따라 서로 차이가 생겨날 개연성이 있다. 맛으로 예를 든다면, 철수네 음식 습성은 늘 매운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얼얼하게 매운 맛·얼큰하게 매운 맛·조금 매운 맛·싱겁게 매운 맛 등으로 미세하게 구분되거나, 아니면 단 음식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너무 달달한 맛·아주 단맛·조금 단맛·은은하게 단 맛 등으로 하위 구분될 수 있다. 또는 맛 영역들 사이에 교차가 일어나서 맵고 단맛·맵고 신맛·맵고 짠맛·맵고 쓴맛 등의 맛 구분이 집단 경험에 따라 특수화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도출 개념을 상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나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체험) 또는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우리들이 겪는 고유한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개별 개념이다. 여기에는 “바스킨 라벤스 아이스크림 맛, 영이네 청국장 맛, 구내식당 깍두기 맛” 등과 같이 매우 특이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념들이 도출되어 나올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거르개를 통하여 생겨나는 것은 믿음의 체계들이다. 일찍이 피어스(Peirce)는 믿음의 고정이란 용어를 써서,²⁾ 믿음이 천부적인 것 이외에 일상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믿음이 고정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은,

아마 우주 끝을 찾는 일처럼 최후의 연구 대상일 듯하다. 그렇지만 믿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믿음들이 서로 얽히고설켜어 복합 믿음 체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그림에서는 그물 모습으로 그려 넣었다(콰인은 이를 ‘인식의 거미줄’로 부름). 각 그물눈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가치’라는 봉들을 꿰차고 있다. 믿음의 체계의 이면은 곧 가치의 체계인 것이다.

언어 및 언어 사용과 관련되는 믿음 체계의 한 요소는 ‘의사소통 의도’이다. 믿음 체계 그물 속에 한 개인의 직접·간접 경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첫 단계가 의도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닌 의도를 남들에게 관찰 가능하도록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이, 현재의 인류에게는 오직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 언어 및 행위이다(혹시 텔레파시 능력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 낸다면, 텔레파시가 추가될 수도 있음). 예를 들면, 대학 신입생인 철수와 영이가 첫 미팅 때 서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이들은 아마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로 언어를 쓸 듯하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었다고 하면, 서로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눈짓만으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행위에도 많이 의존할 듯하다. 언어와 행위라는 두 가지 방식은 칸트 식으로 표현하면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이라고 말할 법하다.

그런데 언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모습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시적일 수도 있다. 청자와 화자 사이에 공유된 경험이 많을수록 암시적인 언어 표현으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난다. 그만큼 의사소통 간격(communicative gap)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 공유된 배경지식이 적다면, 그 간격을 제대로 가늠하여 명시적으로 언어 표현을 해 주어야,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행위 또한 두 가지 모습으로 실현된다. 자연스럽게 평상적인 행위와 어떤 기준이나 규범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위이다. 비슷한 두 가지 갈래의 표현 방식이 같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언어 표현과 함께 어울려 일어나는 경우에 ‘언어-말림 행위’(paralinguistic act)라고 부른다. 언어 표현에 수반된 억양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언어 표현의 의도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된다. 그런데 이례적인 행위가 가령 전혀 기쁘지 않으면서도 축하한다면 웃는 표정을 짓는 일처럼, 남을 속이려는 의도와도 관련될 수 있다. 거짓말과 거짓 행위는, 수신자(=청자)가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만 주체(=화자)의 행동 특성이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해 놓고 있지 않고서는 다룰 수 없다. 흔히 상대방과의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 우리는 그런 일의 평가를 믿음 체계 속에 집어넣게 된다. 거짓 행동이나 거짓말은 일단 기본적인 조건들이 다 충족된 뒤에 연산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논의에서 차치해 둔다. 의도가 명시적인 언어로 전달되는 경우에 그 결과는 담화가³⁾ 된다. 이 그림에서 음영이 들어 있는 직사각형은 다시 제 VI 절에 있는 <그림 5>로 다루게 된다.

2) 필자가 참고하는 판본은 하우스저 외(Houser and Kloesel 1992)편 『피어스 필수 독본 *The Essential Peirce* I, II』(Indiana Univ. Press)이다. 제 1권 제 7 논문이 38세 때 씌어진 「The Fixation of Belief」이다.

3) 이를 한자어로 쓸 경우에 원칙적으로 ‘譯話’를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談話’로 쓰면 다른 뜻을 나타내므로 잘못이다. 허신의 『설문해자』에 보면, 뒤에 있는 談은 깊지 않은 자질구레한 일상 이야기를 가리킨다. 평담(平淡)하거나 담박(淡薄)한 말인 것이다(薄味로 풀이함). 그렇지만 『집운』에 크다(大也)로 풀이된 譚의 오른쪽 요소는 ‘厚+鹵(鹹)’으로 이뤄진 형성자이다. 이는 ‘술맛이 오래가다’(長味, 酒味長)라는 뜻을 지닌다. 어떤 주제를 놓고서 길게 짜여 이어진 말은 이런 어원을 고려한다면 ‘클 담’(譚)을 써야 마땅하다. 담화를 글말일 경우 ‘덩잇글’로, 입말일 경우 ‘덩잇말’로 부를 수도 있다.

II.

먼저 언어를 다루는 시각부터 언급해 나가기로 한다. 언어학의 모태는 흔히 기호학(semiotics)이라고 부른다.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쉬르(1857~1913)는 명시적으로 인간의 정신 그 자체가 기호학의 대상이며, 이 기호의 본성을 잘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 언어를 주목하였다. 미국의 첫 철학자로 숭앙되는 피어스(Peirce 퍼스, 1839~1914)도 그의 선집을 보면, 40대에 논리에 대한 글들을 써 오다가 50대부터 기호(sign)에 대한 글이 나오기 시작한다. 아마 논리의 상위 교점으로 기호학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또는 근대)를4) 열어놓은 선구자들이 다 같이 인간 정신 영역의 최상위 교점을 기호로 귀착시켰던 것은 우연치곤 너무 기이하다.5)

기호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갖는다. 더 쉽게, 껍데기와 속살, 또는 겉과 속을 함께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호학에서 주목하는 기호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형식과 내용이 1:1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다(多) 또는 다:1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앞의 것은 자연 대상을 사진 찍듯이 그대로 모방하여 그린다는 뜻으로 모상(模像 icon, 본뜸)이라 부른다. 형식과 내용이 결합되는 방식은 연구자에 따라 유연성(motivation 有緣性)·자연성(naturalness)·필연성(necessity)·연상 관계(association) 등으로 달리 부른다. 그런데 형식과 내용이 1:1로 대응이 유지되지만, 그 형식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곧 그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피어스는 형식과 경험이 1:1로 대응한다고 규정하고, 색인(index, 붙뜸)라고 불렀다.6) 아마 피어스는 인공언어로서 논리학이 일관되게 색인의 필연적인 연결 고리들이라고 보았던 듯하다. 형식과 내용이 1:1 대응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상징(symbol)이라고 한다. 여러 형식에 하나의 내용이 대응할 수도 있고(가령, '사랑'이란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다수의 문학 작품 예들), 하나의 형식에 여러 내용이 대응할 수도 있다(가령, 낱말의 다의성이 대표적임).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을 자의성(arbitrariness)·비자연성(non-naturalness)·우연성(contingency)·무연성(un-motivatedness 無緣性) 등으로 부른다. 인간이 이용하는 자연언어는, 무의식적이거나 본능적으로 지르는 비명

4) 문학사나 역사를 다루는 경우에는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경향이 있지만, 언어학이나 논리학에서는 '근대 언어학, 근대 논리학'이 없으므로 '근대'라는 변별 특징을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을 적어 둔다.

5) 윤석민 선생님의 토론문에서 "말로 그 뜻을 풀어내기 어려움은 그림으로 풀 것이요, 그림으로도 밝게 하기 어려운 말로 풀 것이요, 이 두 가지로 다 풀 수 없음은 그 일의 뜻을 마음으로 살피어 풀지니라."(주시경 1910:64) 을 인용하면서, 주시경 선생의 '말·일·그림·맘'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필자가 주시경 선생의 글을 아직 자세히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시경 선생의 전체적인 접근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섣뜻 대답할 수 없을 듯하다. 그렇지만, 네 가지 말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들은 동일한 층위에 있는 개념들이 아닌 듯하다. 먼저 맨 뒤에 있는 '맘'을 인지과학에서 추구하는 '인지' 또는 철학에서 추구하는 '정신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적어도 앞의 두 가지 항목인 '말, 그림'을 싸안는 상위 개념이다. 두 번째의 '일'은 필자의 모형 속에서는 실세계의 복합사건 덩이들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며, 이른바 유물주의 심리학(비고츠키 등)에서 고등 정신이 발현되는 계기를 마련해 사회학적 환경과도 관련될 듯하다. 이런 해석에서는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놓일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 그림'은, 언어를 처리하는 데에 적어도 '명제'와 '심상'이 중요한 작용 단위라는 가정을 받아들이면, 이 두 항목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둘 듯하다. 뒤에서 다뤄질 킨취(Kintsch 1999)에서는 덩이질 기반을 이루는 데까지 '명제' 단위가 간여되고, 상황 모형을 만들고 장기 기억 속에 보관하는 데에는 '심상' 단위가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6) 그의 선집 제 2권에 제 2 논문(55세 때 집필)이 「What is a Sign?」인데, 7쪽에 지나지 않는 매우 짤막한 글이다. 여기서 그는 기호가 icon·index·symbol 세 갈래로 나뉜다고 적고 있다. 두 번째 index는 필자의 판단에 책자 끝에 있는 색인(찾아보기)의 비유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본다. 색인의 항목이 '형식'이고, 그 항목이 가리키는 쪽수에 있는 내용이 곧 그가 주장하는 '경험'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더러, 지표나 지시 등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형식'과 '경험'이 1:1로 대응하는 관계를 드러내기에는 미흡한 듯하다. 필자는 피어스의 세 갈래를 두 갈래로만 줄이겠다. 곧 1:1 대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는 것이다.

소리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상징의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는 모두 상징이라고 단순화시켜 말할 수 있다. 상징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아니하므로, 그 관계를 찾아나가는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이 노력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이해의 축(정형화된 상징)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깊고 우월한 해석의 축(새롭게 탐색해 나가야 할 상징)으로까지 뻗어 있다. 이제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형식과 내용 사이에 1:1 대응 관계를 의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인공언어’는 이 글의 논의에서 제외되고, 오직 상징의 대표적 사례인 ‘자연언어’만 다루어진다.

- (1) 기호(‘형식:내용’의 결합) $\left\{ \begin{array}{l} 1:1 \text{ 대응 관계 (자연스런 결합)} - \text{모상(模像) 및 색인} \\ 1:\text{다}, \text{다}:1 \text{ 관계 (비자연적 결합)} - \text{상징} \end{array} \right.$

이제 언어와 언어 사용에 관련되는 특성들을 한데 모아 그림을 그려보기로 한다. 언어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게 하위 층위로 나뉠 수 있다. 말(=입말)과 글(=글말)이라는 표현 매체를 따로 나누어 살펴보면,⁷⁾ 입말과 글말이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큰 단위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

- (2-가) 입말 : 소리 → 형태 → 낱말 → 구 → 발화 → 발화 덩이 → 전체 덩잇말
 나) 글말 : 문자 → 형태 → 낱말 → 구 → 절 → 문장 → 문단 → 전체 덩잇말

이 단위들의 배열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형식에 무게가 실려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용에 무게가 실려 있다. 언어 교육이 모국어(모어) 교육과 비-모국어(비-모어) 교육으로 나뉠 때에,⁸⁾ 후자는 형식에 대한 학습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고, 전자는 내용에 대한 학습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이 초점에 따라 평가의 잣대도 달라진다. 형식에 초점을 모은 학습에서는 반드시 정확성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진다. 그렇지만 내용에 초점을 모은 학습에서는 흔히 ‘능대능소하다’고 얘기되는 능통성(또는 유창성)의 잣대를 쓰게 될 것이다. 형식에 초점을

7) 입말과 글말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 헬러데이(Halliday 1985) 『입말과 글말 *Spoken and Written Language*』 (Oxford Univ. Press)에서는 ‘어휘의 밀집도’(lexical density)라는 잣대로써 입말과 글말을 나눈다. 또한 입말일수록 동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글말일수록 명사 표현들이 더 많이 밀집도 지적한다. 채프·대니얼위츠(Chafe and Danielewicz 1987) 『입말과 글말의 속성들 Properties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Horowitz and Samuels eds. 『입말과 글말 이해하기 *Comprehending Oral and Written Language*』 Academic Press)에서는 여러 특징들에 대한 복합적인 결합(정도의 차이)을 놓고서 입말과 글말을 규정한다. 한편, 일련의 바이버(Biber)의 글들이 주목된다. 바이버(1988) 『말하기와 글쓰기에 두루 걸친 변이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Univ. Press)와 바이버(1995) 『언어 투식 변이의 여러 차원: 여러 언어들의 비교 *Dimensions of Register Variation: A Cross-linguistic Comparison*』 (Cambridge Univ. Press)를 바탕으로 하여, 바이버는 동료들과 더불어(1999) 『입말·글말 영어의 롱맨 문법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와 (2002) 『입말·글말 영어의 롱맨 학생 문법 *Longman Student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출간하였다. 약 3만 8천 중의 텍스트로부터 4천만 낱말을 추려낸 말뭉치를 놓고서, 입말과 글말을 실체를 규명하였는데, 입말과 글말은 ‘언어 투식’(register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기능적 변이임)에서 도출된다고 결론을 짓는다. 필자는 언어 투식도 또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 간격을 좁혀 갈 수 있는 두 방향의 의사소통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입말과 글말을 궁극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마치 신발을 신은 채로 가려운 발등을 긁고 있는 것과 같이 너무 피상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입말과 글말을 해체시키지 않은 채 마치 독립된 개념처럼 취급하기로 한다.

8) 하위 항목으로 외국어 교육과 다중 언어 교육이 있다. 다중 언어 교육에서 대표적인 것이 2중 언어 교육이다. 이들을 구분하는 동기는 한 언어 사회가 다중 언어 사회인지, 아니면 단일 언어 사회인지에 달려 있다. 더러 제2 언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모으는 교육을 언어 기술 중심의 교육이라고 부르고, 내용에 초점을 모으는 교육을 전략 중심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가중치 부여나 강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두부모 가르듯 나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모국어 교육의 낮은 단계에서는 모국어 교육의 배경 지식들을 잘 이용해야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내용에 초점을 모으게 되는 높은 단계에서는 모국어 교육과 비슷한 속성들을 많이 나뉘 갖게 된다. 특히 80년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이⁹⁾ 또한 ‘이해 가능한 산출물’(comprehensible output)에도¹⁰⁾ 초점을 모으기 때문에, 정확성을 추구하는 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언어가 기호로서 형식 및 내용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 단위들이 복합체를 이룬 연결 고리들의 동기를 파악하려면, 이해와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흔히 ‘앞뒤 문맥’으로 번역될 수 있는 co-text를 다루는 차원에서는 이해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 그렇지만 언어 형식 속에 깃들어 있거나 또는 표현되지 않은 내용들을¹¹⁾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용 맥락’이라고 일컬어지는 context를 다뤄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흔히 1차적 이해와 2차적 해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차적인 이해는 언어 형식과 내용에 의해서 제약되므로 이해자들 사이에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지만 2차적인 해석은 숨어 있거나 표현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여 파악해야 되므로, 해석자의 기량과 통찰력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그렇지만, 그런 광막한 가능성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조절해 줄 수 있는 개념이 ‘의사소통 의도’이다.

그런데 더 복잡한 것은 의도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틀(schemata)이다.¹²⁾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1970년대에 심리학자 텀빙(Tulving)은 기억을 짜엮는 두 가지 기억을 제안하였다.¹³⁾ 구체 사례 기억(episodic memory, 일화 기억)과 일반 의미 기억(semantic

9) ‘CLT’(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라는 약어로 불리는 이 흐름은 1970년대에 유럽 통합의 논의와 더불어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198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었다. 새비농(Savignon 2002)편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해석: 교사 교육에서의 맥락 및 관심거리 *Interpreting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ontexts and Concerns in Teacher Education*』 (Yale Univ. Press)에서는 이런 논제를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육의 최근 흐름은 ‘과제 중심’ 언어교육이다. 스키헨(Skehan 1998) 『언어 학습에 대한 인지적 접근 *A Cognitive Approach to Language Learning*』 (Oxford Univ. Press), 엘리스(Ellis 2003) 『언어 학습에 대한 과제 중심 언어 접근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Univ. Press)과 누넌(Nunan 2004) 『과제 중심 언어 교육 *Task-Base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 Press)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0) 크웨션(Krashen 1985) 『*The Input Hypothesis*』 (Longman)의 이해 가능한 입력물(comprehensible input)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스웨인(Swain)은 캐나다에서 2중언어로서 불어를 가르치면서 위 개념만으로는 정확성이 향상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해 가능한 산출물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wain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Gass and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bury House).

11) 이런 입장은 특히 위도슨(Widdowson 2004) 『텍스트·맥락·해석 구실: 담화 분석에서의 핵심 논제들 *Text, Context, Pretext: Critical Issues in Discourse Analysis*』 (Blackwell)의 제 4 장 ‘Context and co-text’에서 강력히 옹호되었다. 그는 이를 더 대립적으로 언어표현 내부의(intra-linguistic) 정보를 이용하는 일과, 언어표현 외부의(extra-linguistic) 정보를 이용하는 일로 표현한다. cotext(앞뒤 문맥)를, 푸슬웁스키(1995, 김종복 이예식 뒤침 2002) 『생성어휘론』 (박이정)에서는 coersion(앞뒤 맥락을 보고서 ‘날말 뜻 고정하기’)이라고 부른다(번역본에서는 ‘강제 유형 일치’로 번역하였음).

12) 심리적 연상 작용과 그 효과를 깊이 연구했던 바이트릴(Bartlett, 1886~1969)은 (1935) 『기억해 내기: 실험적·사회학적 심리학 연구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1995년에 다시 킨취가 재출간 서문을 쓰고 Cambridge Univ. Press에서 나옴)를 썼다. 원래 복합적인 개념틀은 제 10 장 ‘A Theory of Remembering’에서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상정된 개념이다.

13) 텀빙·크라이크(Tulving and Craik 2000) 편 『기억에 대한 옥스포드 소백과 *The Oxford Handbook of Memory*』 (Oxford Univ. Press)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억 연구에 대한 큰 지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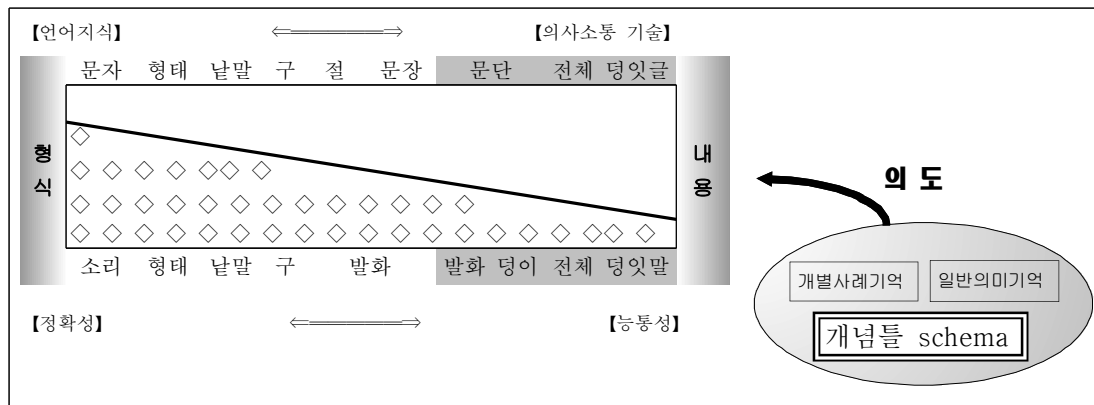
memory)이다. 이들은 모두 단정 서술문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서술 지식’으로 불린다. 이 서술 지식들을 입력물로 하여 ‘if ... then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내보냄)의 연산과정들로 재구성하는 지식을 ‘절차 지식’이라고 부른다. 즉, 서술 지식은 풍부히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가리키며, 절차 지식은 그것을 다른 사례에다 응용하는 일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억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일까? 이는 순수히 심리학적 대답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언어 단위에서 왜 하필 낱말이 존재하고, 문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도 이런 기억 모형과 관련된다(제 IV 절에서 후술됨).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오직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 자연계의 인과율과 인간의 자유 의지이다. 동물의 본능을 자연적 인과율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한다면, 무생물에 적용되는 인과율과 생물에 적용되는 인과율(본능도 포함됨)로 나뉜다. 자유 의지는 인간이 일으키는 사건들과 관계된다. 그런데 사건이란 늘 복합 사건들로 존재하고,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이어져 있는 기다랗고 거대한 복합체이다(복합사건 연결체). 우리는 늘 복합사건 연결체 속에 놓여 있다. 이를 기억 속에 집어넣기 위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복합사건 연결체들을 분절하고 도막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개념 또는 언어라는 거르개가 작용한다. 언어학에서는 ‘육하 원칙’을 언어현상 설명에 적합하도록 고쳐 놓은 의미역 구조로써 개개의 명체들을 표상한다. 그 의미역 구조는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 않고 어떤 질서 위에 차례가 잡혀 있다. 복합사건 연결체들로부터 분절되어 나온 도막들의 연결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는 인과율 또는 그런 복합사건을 일으킨 특정 행위자의 의도라는 포장지로 묶어 놓는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구체 사례 기억에 대한 소략한 묘사이다. 일반 의미 기억은 반드시 구체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이뤄진다. 이는 상위 의식 또는 상위 인식으로서 구체 사례 기억들을 놓고서 많은 적든 일반화 또는 추상화를 진행시켜 나간다.¹⁴⁾ 체험이 다양해질수록 일반화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네모 칸이 언어에 관련된 것이고, 타원이 우리 머릿속 기억에 관련된 것이다. 언어는 전형적으로 형식과 내용 두 층위의 결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형식만 있다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내용만 있는 극단적인 경우는 언어 대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선을 꼭지점 사이에 이어 놓지는 않았다.

인간 기억 연구 분야에서 처음 퍼낸 소백과로서 도움이 크다.

14) 촘스키(Chomsky 2000) 『언어 및 정신에 대한 연구에서의 새로운 지평 *New Horizons in the Study of Language and Mind*』(Cambridge Univ. Press)에서 언어 능력과 수학적(추상적) 사고 능력이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진화된 상으로 언어 능력이 먼저 발달해야, 뒤에 수학적인 고도의 사고 능력이 발현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런 점으로 미뤄 볼 때, 촘스키 교수는 언어 능력이 낮은 단계의 추상화 능력으로부터 높은 단계의 추상화 능력까지 범위가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김지홍(2000) 「촘스키 교수의 내재주의 언어관」 『배달말』 27호와 김지홍(2002), 「‘내재주의’ 언어철학에 대하여」 『시학과 언어학』 3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2> 상징으로서의 언어와 그 하위 층위들의 구성 내용

언어 교육에서 흔히 쓰면서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 있다. 소위 기술(skill)과 전략(strategy)에 대한 구분이다.¹⁵⁾ 다시 기술(skill)은 지식(knowledge)과 대립된다. 기술은 반드시 연습을 반복하면서 체득되는 대상이다. 그렇지만 지식은 한 번만 듣거나 보면 단박에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굳이 반복 연습이 필요 없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skill을 ‘능력’으로 번역하므로, 자칫 이런 구분이 흐려질 우려가 없지 않다. 여기서 문제는 ‘전략’이다.¹⁶⁾ 전략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위 그림에서 기술(skill)은 네모 칸에 관련된 연습 활동이다. 인지 활동이나 인지 능력으로 부를 수 있는 전략이란, 타원에 관련된 연습 활동이다. 이는 무의식적인 ‘절차 지식’을 의식적으로 붙들 수 있게 만들고, 그런 절차 지식들을 확장해 나가는 일과, 언어 사용에 관련된 일반 인지 능력을 이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를 받아들이면, 언어 교육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낮은 단계일수록 <그림 2>의 왼쪽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높은 단계일수록 오른쪽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더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인지 활동에 대한 것들이다. 언어 교육의 평가 또한 이 부분에 가중치가 주어져야 마땅하다. 필자는 이 그림에서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매개해 줄 수 있는 단위로서 ‘담화’를 주목한다. 이는 다시 <그림 5>에서 논의할 것이다.

III.

이제 한 개인의 차원을 떠나, 두 사람 사이에서 언어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모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종전에는 이를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부르고, 주로 야콥슨의 「언어학과 시

15) 언어 교육에서 전략과 관련된 책자는 매우 적다. 웬든·루빈(Wenden and Rubin 1987) 편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 전략들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rentice-Hall)과 옥스퍼드(Oxford 1990) 『언어 학습 전략: 모든 교사가 알아야 하는 것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Heinle & Heinle) 및 옥스퍼드(Oxford 1996) 『세계 각처의 언어 학습 전략들: 여러 문화로부터 나온 관점들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Univ. of Hawaii Press) 등이다.

16) 전략이란 용어가 전형적으로 전쟁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교육에 응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최근 ‘인지 활동’(cognitive activity)이나 ‘인지 능력’이란 용어도 쓰이고 있다. 레비·윈스들(Levy and Ransdell 1996) 『글쓰기 과학: 이론·방법·개인별 차이·응용 *The Science of Writing: Theories, Metho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을 보기 바란다.

학」에 있는 6가지 기능을 언급해 왔다.¹⁷⁾ 이 기능들은 서로 겹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언어 교육에서는 브라운·윌(Brown and Yule 1983:11쪽 이하) 『입말 교육 *Teaching the Spoken Language*』(Cambridge Univ. Press)에서처럼 더 간단한 기능을 언급한다.¹⁸⁾ 곧 정보 전달(transactional) 의사소통과 사교적(interactional) 의사소통이다. 복잡한 여섯 가지 기능보다는 간단한 두 가지 기능이 언어 교육을 다루는 데에 도움이 크다.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주로 ‘작은 사회학’에서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특히 대인 상호작용을 연극의 관점에서 다루어 온 고프먼(Goffman, 1922~1983)은, 이런 측면을 대화 상대방들이 서로 간에 다양하게 부여해 주는 복합적 지위(역할)들로서 파악하며, 역동적인 역할 변화들에 주목한다. 고프먼(1955) 「체면 관련 작업」에서는¹⁹⁾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 주거나, 체면을 깔아뭉개어 버리는 두 축을 상정하였다. 그는 이를 대화가 전개되어 나가는 밑바닥 원리로 보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교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렇지만 정보전달을 위한 의사소통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다음의 의사소통의 동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화자인 나는 알고 있지만, 청자인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 화자에게 이런 판단과 믿음이 강해야 비로소 정보 전달 의사소통을 개시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구인과 외계인처럼 서로 공유된 배경지식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의사소통을 시도하더라도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사소통은 목시적으로 어떤 공통의 배경지식이나 일부 공유된 경험들을 가정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공유된 배경지식 위에서 알맞은 의사소통 간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다음처럼 <그림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17) 이 글은 원래 1958년 인디애나 대학에서 개최된 문체에 관한 학술대회를 마무리 짓는 연설문이었다. 야콥슨은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구성요소들을 6가지 내세우고, 각 요소들이 갖는 기능을 밝혀 놓는다는 점에서, 구조-기능주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철학에서 자주 언급하는 기능주의[가령 Putnam 주장]는 언어학에서의 논의와는 이름만 같을 뿐 내용이 다름). 우리말 번역은 이정민 외(1977) 편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김태욱 번역 부분]』(문학과 지성사), 로만 야콥슨(신문수 1989) 『문학 속의 언어학』(문학과 지성사), 로만 야콥슨(권재일 1989) 『일반 언어학 이론』(민음사)에 실려 있다.

18) 같은 해에 같은 출판사에서 이 저자들은 『담화 분석 *Discourse Analysis*』를 출간하였다. 모국어 교육에서의 말하기와 관련하여 이들은 앤더슨·브라운·셸록·윌(Anderson, Brown, Shillcock, and Yule 1984) 『말하기 교육: 산출 및 평가에 대한 전략 *Teaching Talk: Strategies for production and assessment*』(Cambridge Univ. Press)를 펴내었다. 이런 출간물로써 이들의 관심을 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와 관련하여 그 선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지만, 아마 이는 핼러데이(Halliday 1978:45, 46) 『사회 기호학으로서의 언어 *Language as Social Semiotic*』(Edward Arnold)에 있는 개념 전개 기능(ideational function)과 대인 관계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을 변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핼러데이(1994, 제 2 개정판:xiii) 『기능 문법 입문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Edward Arnold)에서는 개념 전개 기능을 reflective(되돌아보기 기능)로도, 대인 관계 기능을 active(능동적 기능)이라고도 부른다(“All languages are organized around two main kinds of meaning, the ideational or reflective, and interpersonal or active”).

19) 고프먼(1967) 『상호작용 의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행위에 대한 논문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Pantheon Books)에 재수록됨.

impredicativity ‘동일한 차원의 서술 불가능성’을 참고하기 바람).

현대 학문을 열어 놓은 프레게(Frege, 1848~1925)가 처음으로 이들 낱말과 문장이 이름(고유명사)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름이 지시체를 가리키는 외연 의미가 없이 오직 내포 의미만을 갖고 쓰이는 경우가 허다함을 고려한다면,²³⁾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왜 낱말이 있고 문장이 있는 것일까? 이 단위들이 우연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여러 언어들에서 찾아지는 단위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어떤 언어이든지 낱말 단위와 문장 단위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수학적 사고방식을 잠깐 눈여겨보기로 한다.

수학은 개념이나 사고를 추상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한다. 이를 성찰하고 비판하는 영역을 ‘수학 기초론’ 또는 ‘수리 철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추상화 과정과 변항 도입 과정을 전혀 기호를 쓰기 않고, 풀어 제시하기로 한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해답을 찾아낼 것이며, 그 단위들이 심리적 실재임을 보이기 위하여 기억에 대한 논의를 빌릴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명제(≒문장 또는 진술문; 이하 ‘명제’로 통일함)가 있다고 하자.

- (3-가) 우유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
- 나) 주스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
- 다) 페인트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
- 라)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

이들은 수학에서 상항(constant)라고 부른다. 변항(variable)을 도입함이 없이 술어 논리로 표상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논리라고 부른다. 이 상항은 지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값을 확정하게 된다(1차 논리는 피델에 의해서 최초로 ‘완전성 증명’이 이뤄졌으므로, 여러 분야에서 주로 1차 논리에 의해 논리를 전개하는 경향이 많음). 지역을 준다는 것은 가령 위 (3)의 명제들에 대한 주인을 정해 놓는 일이 된다.

- (4-가) 우유 공장은 복돌이네 공장이다.
- 나) 주스 공장은 영순이네 공장이다.
- 다) 페인트 공장은 피보네 공장이다.
- 라) 자동차 공장은 현대회사 공장이다.

여기서 진행할 작업은 지역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3)의 명제들에 변항을 도입하거나 추상화 함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 (5-가) 어떤 것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
- 나) 모든 것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
- 다) 뭔가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

명제 (5)는 변항이 도입되어 있다. 변항이란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호이다. 초기 술어논리에서는 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양화사를 도입하였다. 하나가 존재하는 존재 양화사 또는 해당되는 개체들이 모두 존재해야 하는 전칭 양화사이다. 이 두 양화사 표현은 각각 (5-가)와 (5-나)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들어서서 이런 형식을 만족시키는 값들

23) 예를 들어, 현대 자본 시장에서는 소위 ‘상표’라는 것이 어떤 고정된 내포 의미를 갖지만 외연 의미가 늘 유동적으로 된다. 가령 ‘안성맞춤’이란 이름을 보면, 이것이 현재 반드시 오직 ‘유기 그릇’만을 가리키도록 붙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유동성이 ‘보통 명사’로 기능하는 단초인 것이다. 언어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지시 및 비유’(직접 지칭 : 간접 지칭)임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비유의 흐름을 따라 확대되어 나가는 것은 언어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임을 결론지을 수 있다.

만으로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이 생겨났다. 이를 (유사)추상화 연산자로 표시하는데, (5-다)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²⁴⁾ 이런 형식에 다시 더 높은 수준의 변항(변항에 대한 상위 변항 따위)이 도입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순의 형식과 맞물려 들게 된다.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며, 이를 괴델이 처음 증명한 ‘2차 논리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부른다.

- (6-가) 모든 공장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
 - 나) 모든 공장을 만드는 모든 공장이 있다
 - 나) 모든 뭔가를 모두 뭔가 하는 모든 뭔가가 있다.

(6-가)의 형식은 모순이다. 앞에 주어로 나온 “모든 공장”의 ‘공장’과 뒤에 서술어로 나온 “하나의 공장”의 ‘공장’이 서로 원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 ‘동일 차원에서의 서술 불가능성’(impredicativity)이라고 말한다.²⁵⁾ 즉, 한 대상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속에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대상 속에 들어 있다면, 그 대상의 일부분만을 서술할 수 있을 뿐이다(진부분 집합만 허용됨, 각주 20 참고 바람). 즉, 대상과 관찰 주체 사이에 반드시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나)의 형식은 비록 “모든 공장”의 외연이 주어와 서술어에서 동일한 표현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분간할 도리가 없으므로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리고 (6-다)는 언어 표현만으로는 특성 함수를 가리키는 듯하지만, 어떤 함수 관계를 특정하게 가리키는지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

이제 다시 명사와 문장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흔히 명사가 대상을 가리키고, 문장이 사건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런 직관적 서술은 예외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두려움”과 같은 명사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심적 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고향은 역시 고향이야!”와 같은 문장은 사건을 가리키지 않으며, 외연 의미와 내포 의미를 묶는 높은 관계이다. 낱말과 문장의 관계를 다루기 위하여, 일단 하나의 문장을 놓고서, 구절을 거쳐 낱말로 되어

24) 이는 오직 예시를 위한 방편이다. 추상화 함수(람다 함수)는 참값을 갖는 내용들을 다 모아 놓은 ‘특성 함수’이기 때문에, 그 외연이 우리말 표현 ‘뭔가’와는 똑같지 않다. 여기서 그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반화 과정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추상화 연산자는 수학 기초론과 증명론을 공고히 다져 놓은 취취(Church 1903~1995)에 의해서 (1940) 「유형에 대한 단순 이론의 형식화 A Formulation of the Simple Theory of Types」 『*Journal of Symbolic Logic*』 제 5권; (1941) 「람다 변화에 대한 고등수학 *The Calculus of Lambda-Conversion*」 (Princeton Univ. Press); (1951) 「의미 분석에서 추상화 개체에 대한 필요성 The Need for Abstract Entities in Semantic Analysis」 『*Daedalus*』 제 80호 등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자연언어 분석에서는 몬테규(Montague)가 자신의 내포 의미론을 전개하면서 쓰기 시작하였다.

25) 우연히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마이산을 지나가면서, 불현듯 이 개념과 관련된 비유가 떠올랐다. 마이산 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공들여 쌓은 수많은 돌탑만 볼 수 있을 뿐, 결코 말의 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그 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만, 그 산이 말의 귀처럼 생겼음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가령 문법 교육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문법 교육의 정체성 확립은, 결코 문법 내부에서 문법만으로 자족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문법 영역을 하부에서 떠받치거나 문법 영역을 싸안고 있는 다른 영역을 통해서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다. 문법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형식은 내용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다시 한 차원 확대되어 의도나 또는 배경지식의 관련 항목들을 선택하는 결정 이론과 관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경험의 원천인 복합사건 더미들의 연결체들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문법 교육을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서 없애려고 하여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모국어를 쓰는 학생들에게 문법 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설득력 있는 논증을 과묵하여 아직 접해 보지 못했다. 문법 교육이 일견 자명한 듯하지만, 필자는 문법 교육이 자족적이지 않고 오직 다른 영역과 관련되었을 때에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가는 과정을 보기로 한다.

(7-가) 철수가 영이를 사랑하였다.

(7-가)는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가리킨다. 단일한 사건이란 민간에서 써 온 6하 원칙을 언어학적으로 맞춰 놓은 ‘의미 관계’의 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제 II 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세계 사건들은 복합 사건의 연결체이고, 이를 기억 창고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것들을 단일 사건들의 절편(截片)으로 잘라놓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상위 층위에 있는 사고 및 기억의 제약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복합 사건들의 연쇄는, 이 단일 사건 표상이 배경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초점이 될 수 있다. 반드시 다른 사건들과의 연계 속에서 하나의 단일 사건의 표상이 의미를 갖고 기능을 하게 된다. 하나의 단일 사건 표상이 어떤 열개를 지니는지는 다음 절에서 다뤄진다. 여기서는 우선 (7-가)의 단일 사건이 ‘행위주’ 의미역과 ‘대상’ 의미역으로 이뤄진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며,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화자인 주체가 이 사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매듭짓기로 한다.

(7-나) 철수가 영이를 사랑하였다는 것.

- 다) 철수가 영이를 사랑한 것.
- 라) 철수가 영이를 사랑하였음.

(7-마) 철수의 영이 사랑

바) 철수의 e 사랑

사) e 영이 사랑

(7-아) e e 사랑²⁶⁾

전통문법에 따르면, (7-나, 다, 라)는 명사로 취급받는 절(명사절)이라고 불린다. (7-마, 바, 사)는 명사로 취급받는 구(명사구)라고 불린다. (7-아)는 명사라고 불린다. 그런데 참스끼 문법에서는 이런 구분이 구 단위로 일관되게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임의의 구는 ‘핵어(X’) · 중간층위 핵어(X’) · 최종층위 핵어(XP)’와 같이 표상된다. 이런 참스끼의 가정을 받아들이면, (7-가)를 제외하고 모두 명사구로 취급될 수 있다.

(7-나)는 거의 모든 정보가 (7-가)와 같지만, 문장 속에서 명사로 기능한다는 점만이 다르다. (7-다)는 시제를 표시하는 요소와 관형절을 만들어 주는 요소가 한데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7-나)와 차이가 난다. 이른바 종결어미로 일컬어지는 ‘-다’는 화행의 실제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척도이다.²⁷⁾ (7-라)는 명사로 바꾸어 주는 형태소(현행 학교문법에서는

26) 여기서는 사건 명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구적 낱말과 완벽한 낱말(비통사적 구성을 이룸) 사이의 차이를 따로 다루지 않는다. 구적인 낱말일수록 중의성이 깃들여 있고, 완벽한 낱말에 가까울수록 오직 고정된 의미가 깃든다. 대표적으로 ‘먹을거리 : 먹거리’의 대립에서 전자는 통사적 합성을 이룬 구적인 낱말의 지위에 있으므로, 뒤에 있는 비통사적 구성의 낱말보다 그 외연이 넓은 만큼 중의적이다. 다시 말하여, 음식 재료에서부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포함하여, 조리된 음식까지도 다 가리킬 수 있다. 이른바 ‘앞뒤 문맥’(co-text)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들 가운데 하나가 선택된다. 그렇지만, 뒤의 낱말은 오직 조리된 음식(음식물)을 가리킬 뿐이다. 우리말에서는 낱말과 구적 낱말을 구분하기 위하여, 통사적 기제와 비통사적 기제를 채택한다. ‘사이시웃’이나 어근 결합 구성이 모두 ‘뜻이 하나로 고정된’ 완벽한 낱말을 만드는 기제인 것이다(가령 ‘박쥐 : 눈 밝은 쥐’나 ‘두더쥐 : 땅 뒤흔는 쥐’의 구성을 비교 바람). 낱말을 구적 낱말과 구별하는 것은 보편적일 듯하다. 영어에서는 낱말을 만들기 위해서 어순을 바꿔놓는다.

27) 이른바 무색부취의 ‘원형 어미’로 간주되어, 사전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표시할 경우에 모두 이 어미가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철수가 부산에 왔_더라 : 철수가 부산에 왔_다_더라”

문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명사화 어미로 기술하고, 낱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접미사로 기술하고 있음)가 들어가 있는데, {-기}와 짝을 이루고 있다.²⁸⁾ 문장을 대상으로 하거나 낱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음}은 한 사건의 결과 상태를 가리키지만, {-기}는 한 사건의 과정이나 행위를 가리킨다.²⁹⁾ (7-나)와 (7-라) 사이에는 문장을 명사와 같은 지위로 만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핵어가 다른 만큼 긴 구성({-는 것})을 이루는 핵어는, 그렇지 않은 것({-음})보다 의미의 범위나 내포 의미가 더 광범위하다. 다시 말하여, ‘것’에 ‘사실·추정·증거’ 등과 같이 다른 실질 명사가 대치되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7-마, 바, 사, 아)는 모두 명사들으로써 명사구를 이루고 있다. 이 명사구의 핵어는 사건 명사라고 불리며, 사건 전개에 대한 정보를 부가적인 수의 성분으로 구현할 수 있다. (7-가, 나, 다, 라, 마)에서는 의미역이 아무런 문제없이 동일하게 배당될 수 있다. 이들이 모두 ‘행위주’와 ‘대상’의 개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7-바, 사, 아)에서 공범주(30) 표시된 논항이 없다면, 어떤 의미역이 어디에 배당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여기서는 공범주 논항을 집어넣고서 그런 혼란을 없애기로 한다. 그런데 공범주 요소 ‘e’가 의미표상에서 양화사로 표시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추상화 연산소의 모습으로 표시되어야 할지 결정되어야 한다. 양화사로 표시될 경우에는 다시 전칭 양화사인지를, 아니면 존재 양화사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핵어의 의미자질이 보존되려면, 공범주로 표시된 요소는 추상화 연산소의 모습(λP ; P를 만족시키는 대상들만 모아 놓은 특성 함수)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칭 양화사로 표시된다면, 핵어는 오직 추상적인 어떤 관계(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관계에 대한 범칭)만 나타낼 뿐이다. 그렇다면, 핵어의 의미자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범주 논항이 추상화 연산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7-아)를 다음과 같이 논리식 (7-자)처럼 표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에서는 {-다} 어미를 놓고서 유무 대립을 보인다. 이들은 뚜렷한 의미 차이가 들어가 있다. 적어도 1차적인 해석에서, 앞의 것은 관찰자이면서 화자가 부산에서 철수를 직접 목격하였음을 전체로 한다(자신이 겪은 실제세계의 ‘사건 경험’에 대하여 이후에 말로 보고함). 곧 과거 특정 시점에서는 관찰자 겸 화자가 부산에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뒤의 것은 동일한 시점에서 화자가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말을 들었고[언어 경험], 그 말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 뒤, 이후 시점에서 청자에게 말해 줌). 대립적으로 의미를 차이 있게 만든다면, 앞의 것은 과거 특정 시점에 화자가 반드시 부산에 있어야 하지만, 뒤의 것은 결코 그 시점에 부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이가 바로 종결 어미 {-다}의 유무에 따라 갖드는 것이다.

28) 그렇지만 동족목적어 표현으로 된 낱말의 경우에는 ‘숨쉬기, 잡자기, 뿔뿔기’에서와 같이 통합 관계를 이루며, 그 역은 불가능하다(*쉬기숨, *자기잡, *뿔기뿔). {-음} 접사(=명사형 ‘어미/접미사’의 두 기능으로 지닌 것으로 기술됨)는 결과 상태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심지어 그 ‘산물’이나 ‘결과물’까지 가리킬 수 있다(Levin 1997:51쪽 이하 「Making Sense of Corpus Data: A Case Study of Verbs of Sou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제 2권 1호에서 지적하고 있는 동족목적어 구문의 6가지 특징을 참고하기 바람). 그러나 {-기} 접사는 과정이나 행위만을 가리킨다. 동족목적어 구성은, 결국 개념상으로 오직 결과 대상에 대한 행위 과정으로만 허용된다. 행위 과정의 결과나 결과물로 되는 일은 접사 {-음}의 의미와 중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내재적으로 동기(원인)가 제공되는 자발적 행위들을 요구하므로, 모두 의지를 가진 사람의 속성과 관련된다.

29) 한 단계 더 추상화시켜 올라가면, ‘과정이나 행위’ 및 ‘결과나 상태’의 대립은 ‘부분 및 전체’의 대립과 관련된다. 행위나 과정은 전체의 어느 한 지점에 놓이거나 그런 지점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 및 전체’라는 개념은 매우 근본적인 개념으로, 여러 영역에 적용된다. 가령, 양상 논리학에서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는 전체 가능세계를 다루거나 부분 가능세계를 다루는 것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사고나 인식이 요구하는 상위 층위의 자질로 간주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30) 랑스키 언어학에서는 비록 ‘소리 형식이 비어 있다’는 뜻으로 공(empty)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적 자질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 가정한다. 공범주 요소 e에는 영어 같은 언어에서 큰 공범주 대명사 PRO와 한국어나 이탈리아 어에서 작은 공범주 대명사 pro가 설정된다. 예시의 목적상 복잡한 구분이 불필요하다. 본문의 (7-바, 사, 아)에서는 ‘e’로 표시해 두었다.

(7-자) $\lambda P \lambda Q [IP \Leftrightarrow Q](\cdot, (\cdot)^{31})$

이를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의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로 표시되어 있으며, 누군가에 대한 내용이 둘 모두 채워져야 함을 나타낸다.

이제 문장과 낱말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극점에 있는 (7-가)와 (7-아)를 서로 대비해 보기로 한다. (7-가)의 문장은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현실태)이다. 이는 텀빙(Tulving)의 구체 사례 기억(episodic memory 일화 기억)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7-아)는 추상화된 사건(잠재태)으로서, 그 사건의 주체와 대상이 비단 ‘철수’와 ‘영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랑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 가령,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순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일까지도 모두 참값이 되므로, 그 치역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추상화된 사건은 텀빙의 일반 의미 기억(semantic memory)과 관련된다. 만일 이를 더욱 하부구조로 환원시켜서 양화 표현으로 만들면, 현실태와 잠재태는 각각 부분과 전체에 상응하므로, 심층에서는 존재 양화사와 전칭 양화사를 기반으로 삼게 된다.³²⁾

이를 앞에서 다룬 수학적 사고의 추상화 과정과 관련지어 보기로 한다. ‘문장’이란 (3)과 (4)의 단계를 표현한다. 그렇지만 ‘낱말’이란 적어도 (5)의 추상화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어에서는 적용의 융통성이 생명이며, 이것이 상징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박이처럼 필요·충분조건을 걸어서 문장이나 낱말이 오직 한 단계만을 유일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이른바 피어스의 ‘색인’으로 되어서는 곤란함). 가령, 문장도 추상적인 진술을 말할 수 있으며, 낱말도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두 개의 끝점 사이에 일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들의 위상이 변동하는 것이다. 끝점은 한쪽이 현실로 구현된 사건과 구체 사례 기억으로 이뤄져 있고, 다른 한쪽이 잠재적인 가능 사건과 일반 의미 기억으로 이뤄져 있다. 어떤 상황에서 뭘 사용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언어 사용자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있다.³³⁾

이런 대립 속성을 고려하면, 헬러데이(Halliday 1985) 『입말과 글말 *Spoken and Written Language*』 (Oxford Univ. Press)에서 기술해 놓은 언어 현상을 다룰 수 있다. 유뤼(Ure 1971)의 어휘 밀집도(lexical density)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두 양식이 차이가 나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도, 입말은 병렬 접속 구조 또는 병치절을 많이 취하나, 글말은 종속 내포 구조 또는 하위절을 많이 취하며(제 6장 4절), 입말이 ‘동사’군을 많이 채택하나 글말은 ‘명사’

31) 추상화 연산소가 도입된 형식에는 그 형식을 만족시키는 요소들이 맨 뒤의 괄호 속에 표시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야 진리 값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차원 높여서 아마 ‘사랑하다’는 관계를 추상화 함수로 만들 수도 있다. 즉, ‘ λL ’을 도입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주체와 대상은 그 차원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차원에서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 특정한 속성을 가진 관계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 $\lambda R[R](L)$ ’과 같은 형식이 되는 것이다.

32) 러셀의 용어를 쓴다면 각각 구체 사례인 ‘token’과 일반 유형인 ‘type’이다.

33) 윤석민 선생님 토론문의 두 번째 질문에서, 일반적으로 문장이 낱말들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여기서의 주장을 따른다면 추상화된 일반 의미기억이 특정한 구체사례 기억에 선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하셨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서 논의하려는 핵심은 무엇이 먼저이냐를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문장과 낱말은 물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전형적으로 문장의 기능과 낱말의 기능을 대립시켜 놓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언어가 상징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장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수식어를 동원하여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낱말 또한 구체적이고 시공간 상으로 고정된 수식어를 거느려서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을 가리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상징’의 본성을 구현하는 것이다(“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말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변동가능한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우리의 사고와 논의가 안개 속에 휩싸여서는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전형적인 특성을 대립적으로 상정해 놓은 것임을 밝혀 둔다. 이런 전형적 성격 위에서 이들이 변동될 수 있다. 가령 부사 등을 이용하여 문장이 일반적인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거꾸로 낱말도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제 5장 7절)을 지적하였다. 입말이 전형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치절은 그 상황에서 선택되는 대상들이 나열되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다. 글말이 전형적으로 필자와 독자 사이에 공유된 상황을 결여하거나 또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위절은 그 상황에 대하여 재구성을 보장하는 정보나 또는 그 상황을 일반화시킨 진술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일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왜 전형적인 입말에서는 동사가 많이 실현되고, 전형적인 글말에서는 명사가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일까? 입말은 현실태(지금 실현된 상황)에서 이용되는 의사소통 도구이다. 그런 만큼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이 초점이 된다. 글말은 잠재태(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이용되는 만큼,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사건들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입말과 글말을 갈라 나누는 핵심 속성으로, 이전부터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의사소통 상황'이 공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상정해 왔었다. 이는 현실태와 잠재태를 나누는 한 요소이지만, 또한 더 중요한 요소로서 '정보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여, 화자의 개별 경험들이 문장 단위로 이어지며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 청자와의 정보 간격이 점점 줄어들거나 좁혀지며, 궁극적으로는 그런 간격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화자의 개별 경험이 청자와 함께 하는 '공유 경험'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언어를 통하여 새롭게 획득된 공유 경험들의 연쇄 속에는, 문학에서 추구되는 여러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다.

문장과 낱말은 프레게의 생각처럼 단일 개념을 가리키는 '이름'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함께 묶이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삶을 이루는 복합 사건들의 연쇄를 놓고서, 우리 인식 조건과의 관련 아래 단순한 절편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그 절편도 두 축이 상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의 속성을 띤 끝점과 추상적인 일반 속성을 띤 끝점이다. 문장과 낱말은 이들 사이에서 변동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은 1차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기 때문에, 관찰자 겸 화자가 이를 관찰·경험하여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완결되어야 할 필수 층위가 있다. 명사는 1차적으로 추상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런 요구가 화용상의 필요성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면 수의적이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에 서로 간에 정보 간격이 클 경우에는, 문장들을 연속적으로 산출하여 공유 경험의 토대를 점차 마련하고 확보해 나가야 한다. 반대로 서로 간에 정보 간격이 적거나 공유된 경험이 많을 적에는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명사들의 단편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의도를 알아차릴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문장이 완결되기 위한 층위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V.

우리는 삶을 이루는 실세계의 복합 사건들의 연쇄를 단면으로 잘라내어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된다. 이런 대상들 가운데에서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사건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문장이란 단위가 언어 단위로서 존재한다. 더욱이, 정보 전달용 의사소통은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든 작든 많은 적든 간에 정보 간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체험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부터 인출해 내어 작업 기억 창고에서

문장이라는 단위로 꾸며 표현해 주는 것은 정합적인 일이다. 문장은 하나만이 오직 외톨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장들이 담고 있는 정보가 계속 이어지고 쌓이면서, 의사소통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였을 법한 정보 간격이 차츰 좁혀지거나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임의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 체험이나 경험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사회적 공동체에서는 협동 작업에 의한 토대가 더 굳어지게 된다.

그런데 하나의 문장 속에 담긴 정보가 청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떤 포장지에 싸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 1960년대 초엽 촛스끼 언어학이 깃발을 높이 걸고 전 세계 언어의 밑바닥 원리를 찾아내려고 출범하였는데, 20년이 지나자 어휘 범주들이 세계 언어에 공통적으로 제약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어서 1980년대 말엽에서부터 기능 범주들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³⁴⁾ 여기서 과거의 예상과는 달리 언어마다 모두 기능 범주들도 비슷하게 제약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기능 범주에 대한 연구 흐름에서는 곧 이어 동사를 요구하는 기능 범주와 명사를 요구하는 기능 범주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공통점이나 일반성을 찾는 노력은 추상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달리 말하여, 이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일부 또는 다수 무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찍이 촛스끼 교수는 어휘 범주를 ‘명사 속성’과 ‘동사 속성’을 자질로 배합하여 네 가지 범주를 얻어내었다. 이는 유아에서부터 발달하게 되는 주요 개념들에 상응한다. 곧, 대상 및 실체 개념, 과정 및 행위 개념, 속성 및 성질 개념, 시간 및 공간 개념이다. 이들은 각각 명사·동사·형용사·전치사로 표상된다. 필자는 기능 범주도 또한 자질 배합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장에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기능 범주는 국어문법에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불리는 요소이다.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보다 더 앞에 나온다는 뜻으로 붙여졌지만, 어말어미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앞에 나오는 동사구 또는 명제에 대한 것이다. 선-어말어미는 <화자, 사건>의 관계를 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어말어미는 <화자, 청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제 선어말어미를 ‘I’로 쓰고, 어말어미를 ‘C’로 써서, 이들 자질을 배합하면 다음처럼 네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된다.

- (8-가) [+I, -C] 선어말어미(=시제·양태소 INFL)
- 나) [+I, +C] 연결어미(=접속소 Conj)
- 다) [-I, -C] 높임범어미(=성·수·대우 일치소 AGR)
- 라) [-I, +C] 어말어미(=종결소 혹은 서법소 Comp)

여기서 (8-다)에 주목하기로 한다. 내부 자질 배합이 시제소의 역할도 없고, 종결소의 역할도 없다. 그럼에도 기능 범주의 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능범주는 일치소(Agreement)로 불리며, 동사가 거느리는 논항과 비-논항(=부가어)을 구분해 주는데, 오직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에만 일치 표시를 더해 놓는 것이 그 임무이다. 그 일치 관계는 언어에 따라 고유한 매개인자가 설치된다. 한국어의 경우는 대우 일치를 구현하고 있다.³⁵⁾

34) Hauser, Chomsky, and Fitch(2002) 「The Faculty of Language: What Is It, Who Has It, and How did It Evolve」, 『Science』 제298호, pp.1569~1573에서 촛스끼 교수는 언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속성으로 recursion(반복 속성, 수학에서는 ‘회귀 함수’로 번역함)을 주목한다. 이를 협의의 언어 능력(FLN)으로 보고, 진화의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지니게 되었다고 본다. 광의의 언어 능력(FLB)은 유인원 등 다른 종과도 공유되는 능력이다. 그렇지만 ‘반복’이란 유일하게 언어의 기본 속성만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20세기 초반 수학 기초론에서 자연수의 본성을 다루면서 처음 정립되었으며, ‘무한성·개체성·생성’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만일 반복성이 모든 형식 사고 절차에 적용되는 기본 개념이라면, 언어를 언어답게 만들어 주는 핵심 속성은 반복 속성이 아니라, 다른 속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해답이 제 II에서 언급한 모상과 상정의 차이에서 찾아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35) 윤석민 선생님의 세 번째 질문에서 ‘대우 일치소’의 필수적이지 않고 화용적이므로 적합한 예가 아니라고 하

(8-나)의 접속소는 시제소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종결의 기능도 떠맡을 수 있다. “뭐라고?”와 같이 절단된 채 끝나는 언어 표현의 실상도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접속소는 문장의 확대에 관계한다. 이는 복합 사건의 연결을 담당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2항 접속(≒중속 접속)과 다항 접속(≒등위 접속)을 허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단일 사건으로 된 절편(截片)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논의에서 제외시켜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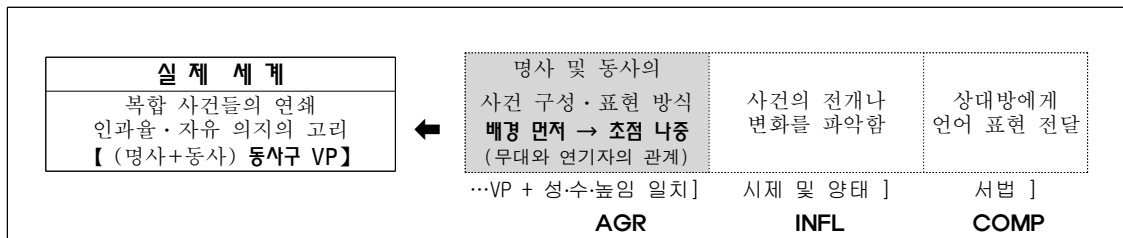
복합 사건들의 연쇄 속에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 내기 위해서는 단일 사건으로 된 절편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동사구 VP(명제라고도 말할 수 있음)로 실현된다. 그 속에 들어 있는 비-핵어(nonhead, 논항과 부가어)들은, 의사소통을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 흔히 배경이 먼저 제시되고 그 위에 초점이 제시되는 순서를 따르게 된다. 이 일이 일단락되면, 이제 기능 범주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핵어인 동사의 논항과 비-논항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언어적 표시를 해 놓는 작업이다. 서구의 언어에서는 주로 성과 수를 중심으로 일치(consensus)를 부여해 주지만, 우리말에서는 대우해야 할 관계를 중심으로 일치를 부여해 준다.

핵어와 논항의 관계를 언어 기제로 표시해 두는 일이 끝나면, 그 단일 사건을 관찰자 겸 화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언어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 한다. 곧, 그 사건의 전개나 변화를 파악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며, 그 사건의 발생에 대한 확실성 여부 등에 대하여 표시를 해 주는 것이다. 앞의 내용을 상과 시제라고 부르고, 뒤의 내용을 양태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하여 이는 <화자, 사건>의 함수 관계를 언어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 특히 형식 의미론이나 논리학에서, 상과 시제는 대소 관계(시제는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해 가는 자연수의 관계를 이용하며, 상은 내부에서 전개 과정을 문제 삼을 경우이며 외부에서 전체를 볼 경우는 달리 취급됨)로 표상된다. 양태는 가능세계를 상정하여 그 범위를 양화 표현으로 나타낸다.

마지막 층위는 <화자, 청자>의 관계를 표시해 준다. 서법에 대한 구획도 자질 이론을 이용하여 2분지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정보 간격이 있는지 여부가 점검되어야 하며, 이는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정보가 흘러갈지, 아니면 청자로부터 화자에게 정보가 흘러올지를 결정해 준다. 앞의 경우는 서술 단정문이나 감탄문을 가리킨다.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앞의 서법이 쓰이고, 비로소 처음 아는 정보에 대해 뒤의 서법이 쓰인다. 특이하게 화자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지만, 이런 자문(自問)이 주위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도록 속뜻을 갖는 경우도 있다. 머릿속으로만 물음을 던지지 않고, 그대로 그 내용을 복사하여 말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뒤의 경우는 청자에게 언어 표현을 요구할 것인지,

시고, 오히려 중세 국어의 ‘ㅅ : 의/의’ 대립이 그 후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말에서 대우는 크게 화용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으로 나뉘고, 문법적인 것은 형태소로 된 것과 어휘로 된 것으로 나뉜다. 대우는 화자의 대우 의지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그 문법 형태소로서 대우가 실현되려면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형태소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이 매우 수의적인 화용적 대우와 차이가 난다고 보았고, 이를 조금 추상화시켜서 ‘논항’의 배열이나 지정에 간여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더 일반화시켜서 진술한다면, 동사에 맨 처음 붙어야 하는 필수 요소는, 동사가 고유하게 거느리는 요소(Williams 1981에서 처음 구분한 ‘내부 : 외부’ 논항)들을 구분해 놓을 개념적 필요성을 구현해 준다고 생각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발견되는 ‘ㅅ : 의/의’ 대립은, 이승녕(1983) “국어의 인대명사의 신분성 지배에 대하여”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22호에서 이미 최소 대립쌍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 다시 말하여, 중세 국어 자료에서 이미 ‘ㅅ : 의/의’라는 두 형태소가 계열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단순히 ‘유정물인지 여부’와 ‘무정물 표현의 극존칭 전용’으로 이들을 설명하기에는 예외가 너무 많은 것이다. 필자는 현대 국어의 직관에 비추어 다음처럼 짐작한다. 앞의 사이시옷은 ‘비통상적 구성’을 대표하는 형태소(전형적인 융합/응축 낱말로 됨)로 보이며, 통상적 구성을 이루는 뒤의 ‘의’는 ‘구적 낱말’을 만들어 주는 형태소인 듯하다. 이들은 겉보기에 계열 관계에 있는 듯이 오해될 수 있겠으나, 실상은 통합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일반화시켜 진술한다면, ‘의’는 외부 논항까지 묶어 줄 수 있지만, ‘ㅅ’은 오직 내부 논항만을 응축시켜 완전한 하나의 낱말 지위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아니면 행위나 행동을 요구할 것인지에 따라, 다시 서법이 의문법과 청유법으로 나뉜다. 의문법은 다시 화자의 자문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양상이 복잡하다.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화자는 자신에게 없는 어떤 정보가 청자에게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물음이 성립되며, 이를 질문(質問)이라고 부른다. 이는 무엇에 대해 묻는 것과 그런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다시 나뉘는데, 물음이 내포문으로 들어가 있는 양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필자는 서법 또한 시제 처리와 같이 연산자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참스끼 문법에서 논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제나 서법들이 구현되는 층위가 실현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프레게가 우주 속의 개체와 대상이 언제나 수로 대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의 개념이 모든 사고에 다 들어가야 하며, 이를 양화사로 상징한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³⁶⁾ 이상의 논의를 다음처럼 도표로 만들어 보일 수 있다.



<그림 4> 문장을 포장하는 필수적 기능범주들과 그 의미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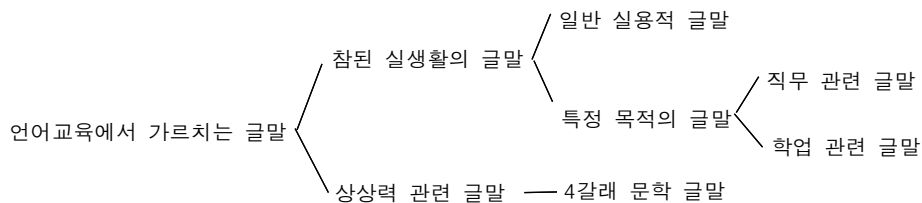
문장이란 단위를 넘어서서, 이제 더 큰 단위인 문단과 전체 덩어리를 다뤄 나가기로 한다. 글말은 크게 문학류의 글과 비문학류의 글로 나뉜다. 전자는 흔히 네 가지 문학 갈래를 나눠 놓는다. 후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적이며 실용적인 글을 다루는 갈래(실무용)가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한 갈래(특정 목적용)가 있다.³⁷⁾ 다시 이 하위 갈래에서 흔히 ‘논술’로 대

36)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김지홍(2000)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백록 어문』 16호에서 동사구와 명사구 두 갈래의 기능범주가 같은 질서를 이루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필자는 이를 기능범주의 ‘상동성’이라고 불렀다. 동사구의 일치소(AGR)와 시제 양태소(INFL)는 사건표현 완결 요소로 통합된다. 이는 명사구에서 수량 분류사와 같이 일치소 및 시·공에 관련된 위상소와 층위가 정확히 일치한다(참스끼 언어학에서는 여태 D로 표기되는 일치소만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명사가 대상·개체와 관련되므로(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 기능범주를 대상표현 완결 요소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종결소(C)는 복합 사건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해 다시 확장 관련 요소로 통합되며, 명사구와 관련된 기능범주는 접속소 및 다른 차원의 관련소들로 이뤄진다. 그렇지만 명사구에서 관찰되는 기능범주들은 수의적이라는 점에서, 동사구에서 관찰되는 것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37) ‘특정 목적의’라는 용어는 뤼처드스(Richards 2001) 『언어 교육에서의 교과과정 개발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 Press)에서 빌려온 것이다. 거기서 언어교육의 발전 방향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목적(core or general purpose)으로부터, 다시 특정 목적(specific purpose)의 교과과정 도입으로 발전해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글의 갈래를 적어두기로 한다. 글말은 먼저 참된 실생활(authentic) 글말과 상상력(imaginary)의 글말로 나뉜다. 참된 실생활의 글말은 현실 속의 사건과 인물들과 관련되지만, 상상력의 글말은 문학과 관련되고, 상상 속의 사건과 인물들을 다룬다. 앞의 부류는 먼저 실용 목적의 글말과 특정 목적의 글말로 나뉜다. 특정 목적의 글말은 직업 관련(job related) 글말과 학업 관련(academic) 글말로 나뉜다. 상상력의 글말은 전통적으로 4가지 갈래로 나뉜다.

표되는 학업 관련 글말은, 줄가리가 잡힌 정보를 전달해 주며, 글쓰기 교육에서 단연 으뜸을 차지한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줄가리가 제대로 잡혀 있는 정보 전달용 글말을 상정하여 다루어나가기로 한다.

하나의 문장은 단일 사건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실세계의 경험은 늘 복합 사건들의 연쇄로 존재한다. 따라서 언어가 실세계에 대한 것을 표상하려면 반드시 더 큰 단위로 묶여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언어 산출자의 밑바닥 의도(또는 글의 주제)이다. 문장과 문장을 묶는 방식은 cohesion(아래 그림에서는 ‘문장 묶기’로 번역)으로 불린다.³⁸⁾ cohesion의 기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두 주장이 있다. 하나는 지시 표현(reference)이라고 본다. 다수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지닌다. 그러나 호이(Hoey 1991)에서는 어휘 사슬이 가장 강력하며 중요하다고 논증하고 있다.³⁹⁾ 어떤 기제를 우선으로 삼든지간에, 문장들은 언어적 기제를 통하여 서로 묶이게 된다. 이를 여기서는 ‘문장 묶기’로 부르기로 한다. 문장을 묶는 기제는 이외에도 대치와 생략과 접속사 사용이 있다. 접속사는 초



여기서 참된 실생활 관련 글말을 주로 ‘표현/산출’에 초점이 모아져 있지만, 상상력 관련 글말은 ‘이해/해석’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우리 국어 교육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낮은 수준에서 ‘일반 실용적 글말’의 표현에 초점이 모아지고, 높은 수준에서 특정 목적의 글말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실업계에서는 직무 관련 글말을 더 많이 다루어 줄 수 있고, 인문계에서는 학업 관련 글말(특히 논술류가 으뜸임)을 더 많이 다룰 수 있다.

38) 학교 문법에서 이를 ‘응집성’이라고 번역하지만, 결코 엉겨(凝) 한 점에 모이는(集)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넓혀지고 펼쳐져 나가는 것이다. 이를 흔히 글의 전개(展開)라고 말한다. 학교 문법에서 채택한 용어는 역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필자는 순수 언어학에서 문장들이 묶이도록 하는 기제 가운데 대명사를 대표적으로 쓰기 때문에, 대명사를 묶는 binding(결속)을 받아들인 것인데, 통사론에서 다루지므로 ‘통사 결속’이라는 말을 써 보았다. 문장을 대상으로 하면 ‘문장 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하여, 문장들을 ‘왕자 풀로 붙여 줘야 한다. 그 결과 ‘문단’이 나온다. 문단들 사이를 강력하게 묶어 주는 것이 ‘강력 본드’이거나 ‘철사 줄’이다. 앞의 왕자 풀은 거의 언어 기제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뒤의 강력 본드나 철사 줄은 더 넓혀져서,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배경 지식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언어심리학에서는 cohesion(통사 결속)과 coherence(의미 연결, 개념 연결)를 구분하지 않고, 다만 수식어를 붙여서 local coherence(지역적 연결)와 global coherence(전반적 연결)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언어 해석에 비언어적 정보가 덧없혀져야 하는 측면을 드러내지 못한다. coherence는 학교 문법에서 ‘통일성’이라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연결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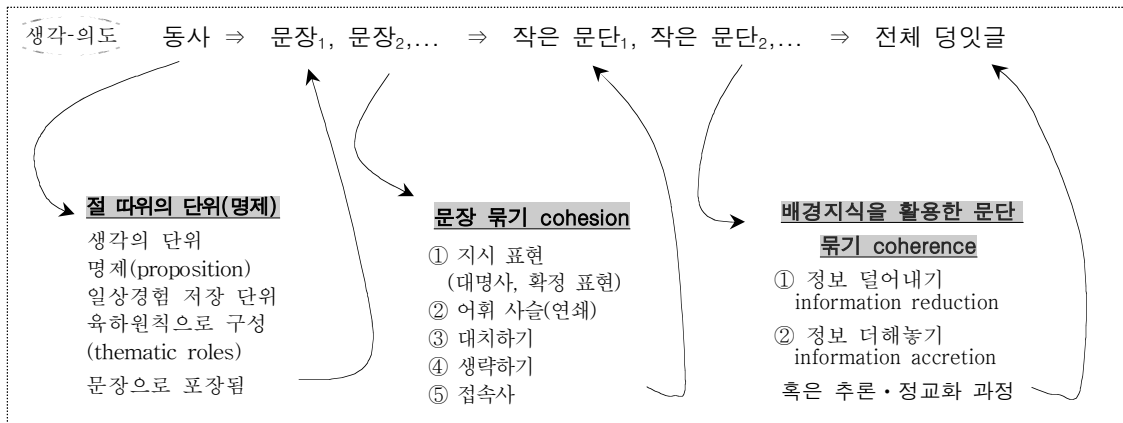
coherence+ evaluation = consistency (or unity)

인 것이다. 필자는 coherence를 ‘의미 연결’ 또는 ‘개념 연결’로 부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경우에, 언어로 표현된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단과 문단을 이어주는 경우에,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내용들이 관계한다. 위도슨(Widdowson 2004: 제 4 장) 『텍스트·맥락·해석 구실: 담화 분석에서의 핵심 논제들 *Text, Context, Pretext: Critical Issues in Discourse Analysis*』(Blackwell)에서는 명시적으로 extra-linguistic information(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언어 외부의 정보)라고 부른다. 따라서 대립적으로 표현하면 cohesion(편의상 ‘문장 묶기’로 번역함)은 <문장, 문장>을 묶는 관계이나, coherence(편의상 ‘문단 묶기’로 번역하지만, 반드시 이해자의 배경 지식이 들어가야 함을 유의 바람)는 <언어 표현, 배경 지식>을 묶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39) 호이(Hoey 1991) 『딩잇글에 있는 어휘 결속의 여러 가지 유형 *Patterns of Lexis in Text*』(Oxford Univ. Press)에서는 어휘 사슬을 통한 묶기의 상위 개념이 ‘반복 그물’(repetition net)이며, 덩잇글 주제 열어나가기와 주제 매듭짓기 등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기제도 함께 다룬다. 정보를 가득 담고 있는 책자나 덩잇글을 놓고서, 그 난이도나 가독성 정도도 그 책자에서 다룬 개념을 통해서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다. 국어교육에서 어휘를 다루는 경우에 이런 논의가 없는 듯하다. 여기서는 호이가 다루는 어휘 사슬도 문장을 묶는 기제 속에 포함되므로 이를 따로 다루지 않는다.

보 학습자의 글말에서 자주 관찰되며,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문장과 문장이 묶이어서 만들어진 단위를 ‘문단’ 또는 ‘소단락’이라고 부른다. 문단이나 소 단락도 또한 서로 함께 묶이어야 한다. 이를 coherence(의미 연결, 개념 연결)라고 부른다. 영 어의 어원은 cohesion이나 coherence나 모두 똑같이 ‘stick together’(함께 붙다)라는 뜻이다. 문단과 문단을 붙여 놓는 강력 본드는, 기본적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되고 있는 덩 잇글의 전개 관행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이를 ‘추론’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정교화 과 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킨취(Kintsch 1993)에서는⁴⁰⁾ 두 단계로 나누어 정보 덜어내기 과정과 정보 더해 놓기 과정으로 부른다. 앞의 과정은 요약하기를 가리키며, 뒤의 과정은 덩잇글의 정보에 비추어 독자의 배경지식(또는 복합 개념들)을 더하여 새로운 상위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여러 단계들을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⁴¹⁾



<그림 5> 담화 조직 원리

위에 두 줄 화살표(⇒)로 된 것은 덩잇글에 대한 하위 단위들이 더 높은 단계의 단위로 바뀌는 과정을 표시해 준다. 아래에 있는 실선 글상자는, 각 단계마다 입력을 받아들여 출력물을 만들고, 더 높은 단계의 단위로 바꿔 주는 부서들이다. 가령, 맨 처음 단위 사건 개념을 표상하기 위하여, 명제나 문장을 표상해 주는 부서가 있다. 거기에 입력물은 동사이고, 동사는 하나의 문장을 투영하면서 필요한 논항들을 거느리게 된다. 그 결과는 문장이 된다. 그 개별 문장들은 ‘문장 묶기’의 부서 속으로 들어가는 입력물이다. 그 부서는 산출물로서

40) 킨취(1993) 「덩잇글 처리에서 정보 더해 놓기와 정보 덜어내기: 추론 Information Accretion and Reduction in Text Processing: Inference」 『담화 처리 Discourse Processes』 제 16 권(193~202쪽)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이런 능동적 작용이 옛 용어로는 미시명제(micro-proposition)로부터 거시명제(macro-propositions)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적용된다. 킨취(1998) 『이해: 인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 예 Comprehension: A paradigm for cognition』 (Cambridge Univ. Press)에서는 이것이 덩잇글 토대를 이루는 데 적용된다. 다음 절 및 각주 49)를 보기 바란다.

41) 윤석민 선생님의 네 번째 질문은, cohesion 및 coherence의 용어 이해와 관련된다. 결속구조와 결속성, 또는 응결성과 응집성 등의 번역들이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언어심리학에서 이들을 local coherence(지역적 연결)와 global coherence(전반적 연결)로도 쓰기 때문에 자칫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간단히 독립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언어적인 기제로 묶어 가는지, 아니면 이해 주체의 배경 지식이나 언어 외적 정보를 동원하여 묶어 가는지로 나뉜다. 앞의 것을 cohesion이라 부르고, 뒤의 것을 coherence라고 부른다. 앞의 각주 38)에서도 밝혀 두었듯이, 이런 구분이 옳다면, 언어심리학의 용어는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작은 문단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으로 작은 문단들이 다시 ‘문단 묶기’의 부서 속으로 들어가서, 출력물로서 전체 덩어리를 완성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이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다. 왜냐 하면, 글 쓰거나 글 읽기 과정은 반복되면서 애초 생각을 점차 수정해 나가기 때문이다.

VII.

이상에서 살펴본 언어 체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산출(표현) 과정과 처리(이해) 과정을 거치며 구현된다. 언어의 산출과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는, 언어심리학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이전에는 산출과 처리가 동일한 과정을 되밟는다고도 가정되었다. 곧 이해의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 산출의 과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산출과 이해의 과정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어난다. 여기서는 언어 산출의 과정으로서 처음 명시적으로 종합해 놓은 르펠트(Levelt 1989, 1999)의 산출 모형과, 언어 처리의 과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킨취(Kintsch 1998)의 구성-통합(CI) 모형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⁴²⁾

언어 산출과 처리를 다루려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되는 생각의 ‘실체’와 그 ‘단위’들에 대한 가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일 간단한 것이, 포더(Fodor 1975) 『사고의 언어 *The Language of Thought*』 (Harvard Univ. Press)에서 제시된 ‘명제’이다. 두 번째로 킨취(Kintsch 1974) 『기억에서의 의미 표상 *The Representation of Meaning in Memory*』 (Lawrence Erlbaum)과 킨취(Kintsch 1998) 『이해 *Comprehension*』 (Cambridge Univ. Press)에서 제시된 ‘명제’와 ‘심상’이다. 세 번째로 존슨-레이드(Johnson-Laird 1983) 『정신 모형 *Mental Models*』 (Harvard Univ. Press)에 제시된 ‘명제’와 ‘심상’과 ‘상위의 처리기’이다. 이밖에도 다른 가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 산출과 처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두 번째 가정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의 실체나 단위를 결정하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가정이 있다. 연산주의와 연결주의이다. 전자는 생각이라는 것이 입력과 출력의 거대한 흐름도 형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튜링(Turing 1950) 「계산 기계와 지능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을⁴³⁾ 비롯한 그의 일련의 업적으로부터 나왔다. 지능을 갖추어 생각을 하려면 ‘입력기 · 출력기 · 기억창고 · 중앙처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은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어느 곳에 있을 법한 지능을 갖춘 존재도 동일한 조건을 구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편 튜링 기계라고 부른다.⁴⁴⁾ 연산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연산이 이뤄

42) 이 두 업적이 모두 필자의 웹페이지(<http://nongae.gsnu.ac.kr/~jhongkim>)에 번역되어 있다(pdf 파일).

43) 필자의 웹페이지(1999년 1학기 강의)에 번역을 올려놓았다. 최근에 일반 독자를 위한 책으로, 쉬버(Shieber 2004)편 『튜링 검사: 지능의 특징으로서 언어 행위 *The Turing Test: Verbal Behavior as the Hallmark of Intelligence*』 (MIT Press)를 보기 바란다. 더 깊은 논의를 개관하려면, 허킨(Herken 1994)편 『보편 튜링 기계: 반세기 연구 *The Universal Turing Machine: A Half-Century Survey*』 (Springer-Verlag)를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반세기의 기점은 튜링의 1937년 「계산 가능한 숫자들에 대하여: 결정성 문제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On computable numbers, with an application to the Entscheidungsproblem*」라는 논문이다.

44) 이 흐름에서 가장 뛰어난 설계는, ‘연산 층위 · 표상 층위 · 구현 층위’라는 세 층위를 갖춘 마아(Marr 1982) 『시지각: 인간의 시각 정보 표상과 처리에 대한 연산처리 탐구 *Vision: A Computational Investigation into*

지는 부서들이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오고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순서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포더(Fodor 1983) 『정신의 단원체 속성 *The Modularity of Mind*』 (MIT Press)의 주장에 따라 ‘단원체 가설’로 부른다.⁴⁵⁾ 후자는 뢰멜하알·머클래런드 등(Rumelhart, McClelland, and the PDP Research Group 1986) 『병렬 분산 처리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2vol. set)』 (MIT Press)에서부터 시작된다. 매우 소박한 형태는 초기 심리학의 연상관계 모형이다.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별 단원체들이 ‘자극/억제’에 의해서 활성화가 확산되거나 소멸한다. 현재 이런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이들을 합치거나 또는 더 수정된 모습으로 여러 갈래의 가정이 제안되어 있다.

르펠트(Levitt 1989, 1999)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산출을 연산주의 바탕 위에서 모형을 세워 놓았다. 더 쉽게 말하여 일련의 규칙 체계들에 의해서 언어가 산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인간이 지닌 중요한 ‘자유 의지’의 속성을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연산주의의 더 약화된 모습을 ‘제약-만족’(constraint-satisfaction) 과정이라고 부른다. 킨취(Kintsch 1998)에서는 언어 처리의 모습이 이런 바탕 위에서 이뤄진다고 가정한다.

언어 처리 과정은 주로 읽기 연구를 중심으로 방대하게 이뤄져 왔다. 킨취의 ‘구성-통합’(CI) 모형에서는 세 가지 단계를 설정해 놓는다. 덩잇글에 드러난 액면 그대로의 글말 정보를 ‘덩잇글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라고 부른다.⁴⁶⁾ 이 덩잇글 표면구조는 명제 단위로 분석되면서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 재구조화는 추론 또는 정교화 과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한다. 미시명제(소단락 주제)와 거시명제(대단락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들이 하나의 유기적 짜임을 이루게 되면, 그 결과를 ‘덩잇글 토대’(text-base) 또는 ‘텍스트 기반’이라고 부른다. 표면구조로부터 덩잇글 토대로 이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장기기억을 일부 빌려 작업기억으로 활용하게 된다(장기 작업기억 가정).⁴⁷⁾ 덩잇글 토대는 마지막으로 장기기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상황 모형’(situation model)을 만들게 된다. 덩잇글 토대는 명제 단위들로 이뤄져 있지만, 상황 모형은 심상 단위로 이뤄져 있다. 어떤 덩잇글을 기억해 낼 때에 우리가 인출해 내는 것이 바로 상황 모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교한 이해란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심상(머릿속 그림)이다.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덩잇글에 대한 심상이 정교하고 입체적인지, 아니면 허술하고 단편적인지로 크게 갈릴 수 있다. 또한 덩잇글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잘못 상정된 거시명제들을 빨리 지워서 더 유기적이고 정합적인 거시명제로 대체시

the Human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 (Freeman & Co.)일 것이다. 우리말로 정찬섭(1989) 「시각 정보 처리 계산 모형」, 이정모 외 11인 『인지과학』 (민음사)을 읽을 수 있다.

45) 우리말로는 조명한(1989) 「언어처리 이론으로서의 단원성의 문제」, 이정모 외 11인 『인지과학』 (민음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포더의 책 가운데 유일하게 이영옥·정성호 뒤침(1991) 『표상: 인지과학의 기초에 대한 연구』 (민음사)가 번역되어 있다.

46) surface structure(표면구조)는 왓슨이 교수가 학술 용어로 처음 썼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주의 없이 쓰이고 있다. 윤석민 선생님의 다섯 번째 질문은 이 용어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소개한 르펠트의 ‘표면구조’와 킨취의 ‘표면구조’는 같은 낱말이지만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언어 산출 과정에서의 ‘표면구조’는 음성 형식을 갖추기 위해 중간 매개 형식이다. 다시 말하여 머릿속 단원체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매개물이다. 구분을 위하여 (매개) ‘표면구조’라고 쓰기로 한다. 그러나 이해 과정에서의 ‘표면구조’는 덩잇글에 씌어 있는 그대로의 문장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덩잇글 표면구조’로 번역하여 서로 구분해 놓기로 한다.

47) 이는 배들리(Baddeley 1984) 『작업 기억 *Working Memory*』 (Oxford Univ. Press)에서 가정하고 있는, ‘조음 순환회로·공간-시각 메모판·중앙처리기’로 구성된 ‘단기 작업 기억’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켜 나가는지 여부에도 달려 있다. 읽기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이를 ‘억제 기제 효율성 가설’이라고 부른다.⁴⁸⁾ 킨취의 언어 처리 모형을 받아들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명제’의 형성이다. 이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해 주체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배경 지식 속에서 일군의 후보들을 작업 기억에다 인출해 놓고서, 계속 입력되어 들어오는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올바른 후보를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다.⁴⁹⁾ 이런 사실들은 언어 교육에 매우 중요한 함의들을 담고 있다.

언어 산출 과정은 언어 처리 과정과는 다른 단계를 거친다. 굳이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두 과정에서 명제 형식들이 이용되며, 동일한 머릿속 어휘부가 이용된다는 정도뿐일 듯하다. 르펠트(Levelt 1989)에서는 ‘개념 형성기·언어 형식 주조기·조음기·점검기’를 상정하였고, 르펠트(Levelt 1999)에서는 더욱 간단히 ‘수사-의미-통사 체계’와 ‘음운-음성 체계’로만 구분하였다. 기호가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라고 할 때, 앞의 체계는 내용에 해당되고, 뒤의 체계는 형식에 해당된다. 이 두 체계는 머릿속 어휘부서(mental lexicon)에 의해서 매개된다. 그곳에는 통사 의미 정보값(lemma)을 지닌 개별 어휘들이 들어 있다.

이 전개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어 산출 주체가 전달할 내용을 생성해 내는 단계가 주어진다. 여기서는 어떤 의사소통 의도를 따라 ‘언어화 이전의 전달내용’(preverbal message)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는 명제 모습으로 표상된다. 이는 거시적 설계와 미시적 설계 단계로 나뉘는데, 이는 담화 초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청자와의 정보 간격을 가늠할 수 있는 모형, 외부 세계에 대한 배경 지식, 표현 방식을 결정짓는 서술 관점, 수식어 선택 여부 등이 유기적으로 간여된다. 언어화 이전의 전달내용은 문법부호 입력기에 들어가서 (매개) ‘표면구조’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는 언어의 형상성에 따라 어순이 고정되거나 문장을 형성하는 여러 문법 표지들이 붙게 된다. 이를 위해 머릿속 어휘부로부터 관련된 어휘의 통사 의미 정보값(lemmas)들을 인출해야 한다. 이 단계까지는 화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산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며 고쳐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출 단위들이 한꺼번에 완벽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족적인 최소한의 단위로서 차츰차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이런 점증적 산출 원리는 역동적으로 산출 과정이 중도에서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 준다. 여기까지가 ‘수사-의미-통사 체계’ 경계이다.

완성된 표면구조는 형태-음소 부호화 장치로 들어간다. 이 이후의 단계부터는 ‘음운-음성

48) 김선주(1998) 「글 이해 능력의 개인차: 억제 기제 효율성 가설(inhibition mechanism)을 중심으로」, 이정모·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I: 언어와 인지』(학지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49) 빈 다익(van Dijk 1980: 제2 장 4절) 『거시구조: 담화·상호작용·인지 과정에서 전반적 구조들에 대한 복합 학문적 연구 *Macrostructures: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Global Structures in Discourse, Interaction, and Cognition*』(Lawrence Erlbaum)에서는 거시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시규칙(Macrorules)으로 지우기/선택하기(deletion/selection), 일반화하기(generalization), 구성하기(construction)를 다뤘다. 한편 킨취(1993:195) 「덩잇글 처리에서 정보 더해 놓기와 덜어내기: 추론 Information Accretion and Reduction in Text Processing: Inference」 『담화 처리 *Discourse Processes*』 제 16 권(193~202쪽)에서는 더 간단히 상위 범주를 ‘정보 덜어내기/더해 놓기’를 설정하고, 그 하위 범주를 다음처럼 제시하였다.

추론(inference)에 대한 분류

종류 \ 내용	정보 더해 놓기		정보 덜어내기	
	인출	생성	생략	일반화
무의식적인 자동 처리	교량(bridging 연결) 추론, 연상 정교화	익숙한 영역에서 전이(transitive) 추론	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의 생략	익숙한 영역들에서 구성, 일반화
의식적으로 제어된 처리	교량(bridging 연결) 지식에 대한 탐색	논리적 추론	주요 초점들의 추출	익숙하지 않은 영역들에서 구성, 일반화

체계'에 속하며, 외현된 발화를 스스로 점검하는 단계 이전까지는 대체로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 형태-음소 부호화는 앞 단계에서 하나의 통사 의미 정보값이 선택됨에 따라 즉시 형태 부호들이 활성화되므로, 거기에 따라 형태 구성 및 음운 구성이 이뤄지게 된다. 이 구성도 또한 점증적으로 처리가 이뤄진다. 그 결과가 음운 내역(phonological score)이다. 이는 음절화의 표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음운구와 억양구, 그리고 전체 문장의 억양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 이는 음성 부호화 장치로 들어가서 조음 내역(articulatory score)을 산출해 준다. 이는 조음기관으로 명령을 내려 후두와 후두 상위 기관 등을 움직여 외현된 말소리를 산출해 낸다. 임의의 발화를 맨 처음 듣는 사람은 화자 자신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말실수나 오류를 스스로 고치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고치기가 일어난다면, 다시 처음 과정으로 되돌아가 다시 산출이 시작될 수 있다. 자신의 발화를 고치는 데에는 광범위한 인지 전략이 동원되며, 결코 한정된 일부 영역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발화 산출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언어 교육에 대한 함의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언어 처리(이해)와는 달리 현재 의식적 제어 과정이 일부 단계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가령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로서 전달내용을 생성하는 첫 단계를 보면, 의사소통 의도가 어떻게 생겨나며, 그 의도를 관철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오직 내적 성찰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의도 그 자체를 다루려면 어떤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⁵⁰⁾

VIII.

이 절에서는 '언어 사용'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이 글에서 언어에 대한 자각만으로는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고 보았다. 언어는 저절로 기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언어 이외의 여러 다른 기관과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사용의 문제는, 그것이 언어이든 행위이든, 인간이 자유 의지(free will)를 지녔음을 전제로 한다. 만일 인간이 그저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더라면(또는 로봇과 같은 존재였더라면), 더 이상 사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해 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저 자연계의 인과율을 따라서(입력된 프로그램을 따라서) 적절한 자극에 기대되는 반응의 연쇄들만을 기술하고, 그 기술 속에서 복잡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확률이 높은 예측이 가능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대가 사실이 아니며, 상황이 정반대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인간 정신의 대립적 두 측면이, 일반화 및 추상성을 지향하면서 개별 특성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학 정신'과 개별화 및 구체성을 지향하면서 특수한 차별성을

50) 이 글에서는 '의사소통 의도' 또는 일반적 '의도'를 다루지 않는다. 의도(intention)가 중심 개념으로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라이스(Grice 1971) 「Intention and Uncertainty」,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vol.#57(pp. 263~279)인 듯하다. 그는 의도를 어떤 일련의 행위들과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의도가 더 하위 차원으로 환원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데이비슨(Davidson 1986) 「A New Basis for Decision Theory」, Daboni et al. eds. 『Recent Developments in the Foundations of Utility and Risk Theory』 Reidel(pp.43-56)에서는, 믿음 체계들 중에서 어떤 행위를 위해 모종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곧 '결정 이론'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브릴먼(Bratman 1999) 『Faces of Intention』 (Cambridge Univ. Press)에서는, 의도를 계획 행위성(planning agency)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의도에 대한 연구서는 Cohen et al. eds.(1990) 『Intentions in Communication』 (MIT Press)와 Malle et al. eds.(2001) 『Intentions and Intentionality』 (MIT Press) 등 여러 권이 나와 있다. 연구자들은 주로 철학자·심리학자·사회학자·인공지능 연구자 등이다.

덧붙여 가는 ‘예술 정신’으로 나뉜다고 한다면, 자유 의지는 이 두 축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다. 어떤 영역 위에 있든지 간에, 자유 의지의 구현인 사용의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세워 놓거나 어떤 제약 만족의 형식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 틀에서 더 높은 일반성을 추구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틀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틀 세우기를 시도해 나갈 수 있다.

언어는 서구의 전통에서는 ‘진리’와 관련되어 다뤄져 왔다. 칸트(Kant, 1724~1804)가 우리 사고를 대표하는 진술로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내세우고, 진리를 추구 방식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선언하였을 때 이는 더욱 분명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분석 명제는 진술 속의 언어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진리값을 정해 줄 수 있다. 종합 명제는 외부 경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야 진리값을 정해 줄 수 있다. 종합 명제는 언어 분석 위에, 다시 우리 경험 세계의 정보가 더해져 종합될 때에야 진리값을 알 수 있게 된다.⁵¹⁾

그러나 오스틴(Austin, 1911~1952)은 직접 진리값을 따질 수 있는 진술과 실행을 완벽히 이뤄냄으로써 진리값이 확보되는 진술로 나뉘는 것을 깨달았다. 전자를 진리값 진술(constative)로 부르고, 후자를 수행 진술(performative)로 불렀다. 그러나 단정이나 선언을 하는 전자의 진술도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언어 행위로 묶인다. 그런데 언어 행위를 다루기 위해서 그는 진실성 조건을 상정하였다. 그렇지만 반어 표현과 같은 반례에서 보듯이 모든 언어 표현이 진실성의 조건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좀더 역동적인 언어 사용의 모습은 그라이스(Grice, 1913~1988)에 의해서 다뤄진다. 그의 3권의 유작 가운데 1989년 『날말들의 사용법에 대한 연구 *Studies in the Way of Words*』(Harvard Univ. Press)에 언어 사용에 관련된 글들이 다 수록되어 있다. 그는 언어 사용이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그 가치의 궁극적인 뿌리는 ‘죽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1991 『가치에 대한 개념화 *The Conception of Value*』 Clarendon). 또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다루면서, 순수 이성 과 실천 이성의 두 측면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고 보았다(2001 『이성의 여러 측면 *Aspects of Reason*』 Clarendon).

그라이스는 전형적인 언어 사용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식에 바탕을 두고 ‘대화 규범’(maxim)⁵²⁾ 상정한다. 질과 양이 적절해야 하고, 앞 뒤 말이 관련되어야 하며, 기존의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범은 준수될 수도 있고 위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에서 화자가 어떤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을 하게 되면,⁵³⁾ 상대방에서는 언어 표현을 통하여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 언어 행위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렸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알아차렸음을 적절히 반응으로 표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즉 언어 사용이 적어도 ‘언어 표현 층위 · 담긴 의도 찾아내기 · 서로 반응 인식하기’ 사이의 순환 과정인 셈이다.⁵⁴⁾

51) 콰인(Quine, 1908~2000)은 이 두 구분이 언어 전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그는 총체론적 접근 방식을 주장한다. Quine(1953, 허라금 번역 1993 제 2 장) 『논리적 관점에서』(서광사) 「경험주의의 두 교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52) 일본인들의 번역 용어 격률(格律)은 ‘격언과 같은 지위의 법률’의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런데 격언과 법률은 강제성 측면에서 정반대이며, 서로 같이 뒤섞일 수 없는 개념으로 판단된다.

53) 표현에서는 늘 어떤 속뜻(implication)이 깃드는데, 초기에는 언어 표현 관례에 따라 깃드는(conventional) 속뜻과 대화 상황에 따라 깃드는(conversational) 속뜻으로 나누었다가, 후기에는 이들이 ‘의도 인식’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통합된다.

54)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언어 상황을 이용하여 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한편, 이런 측면을 클락(Clark 1996)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세 차원의 영역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청자와 화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현장 상황 층위(level)가 있고, 이를 점검하는 점검 경로(track)가 있으며, 청자와 화자가 협력이 잘 이뤄지는 경우에 새로운 층위(layer)이 도입된다. 현장 상황 층위에서는 다음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일부 겹쳐서 일어난다.

- ① 화자 제안—청자 고려
- ② 화자 신호—청자 인지
- ③ 화자 제시—청자 확인
- ④ 화자 실행—청자 주목

점검 경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뤄진다. 이들은 점층적 단계이므로 더 뒤 단계가 만족되면, 이전 단계는 이미 만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점검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화자는 새로운 상황을 도입하여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모형을 어떻게 세우든지, 그 언어 표현은 의도를 담고 있고 그 의도를 제대로 가늠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일로 이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의사소통의 중심에는 의도(의사소통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청자가 제대로 가늠해 내고, 화자 또한 제대로 자신의 의도를 청자가 깨달았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어 표현을 하는 경우에 대화 규범을 일부러 어긴다면, 대화 상대도 이 점을 곧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보내어 제반 조치를 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숨겨진 의도’ 또는 ‘숨은 의도’를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는 방식은 오직 대화 상대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누적시키거나 대화 상대의 언어 행위를 겹쳐 읽는 일(높은 차원의 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초기 그라이스의 관심은 화자와 의도와 언어 표현에 쏠려 있었지만, 후기의 관심은 청자와 의도된 반응 이끌어내기 여부(그런 관찰을 할 수 있는 실세계 경험)에 더 모아져 있다. 이는 의사소통에 대한 ‘자연주의화’ 또는 ‘외재주의에로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무리 제멋대로 상징과 자유 의지를 구가하여 임의의 의사소통 도구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기대된 적절한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차라리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의사소통에서 첫 출발점도 실세계에 있는 청자이고, 마무리도 또한 실세계에 있는 청자가 되는 듯하다.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가 청자와의 ‘의사소통 간격’이며, 의사소통 완결이 화자 자신의 의도를 청자가 깨달았다는 신호를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청자 중심의 의사소통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의사소통 실패가 극복되거나 회복되는 열쇠는 청자에게 있으며, 청자로부터 기대되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확인하는 일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실세계’를 경험하는 여느 일과 동일 지평에 속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도구의 자연성과 비-자연성의 통합도

언어 표현을 듣는다. ② 그 표현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저의(底意)나 의중(意中)을 탐색하거나 파악한다. ③ 더 나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인품까지도 평가하게 된다. 중립적인 인식이 약한 인식이라면, 가치 평가는 좀더 강한 인식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표현→의도→인식’의 단계별 과정과 일치한다. 이런 인식의 결과 청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청자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 만일 청자가 반응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가정한다면, 의사소통의 모습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반응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약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자와 화자 사이의 ‘협동성’이라는 개념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협동성은 청자의 반응 가능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며, 소박하게 청자가 기대대로 반응한다고 화자가 믿도록 만든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사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의사소통이 실패할 경우에, 그 설명은 아마 이런 화자의 잘못된 믿음이나 오판과 관련되어야 할 듯하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후기의 언어 사용 모형에서 그 초점은, 청자가 화자와 공통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청자가 따로 실세계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자는 중의적인 역할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 청자와 화자가 의사소통을 이루려면, 상호주관적으로 청자와 화자가 동일한 존재임을 전제해야 한다. 그와이스는 이를 다음처럼 삼각형 관계로 표현한다.



청자와 화자는 모두 머릿속에서 삼각형으로 이뤄진 대응 관계를 내재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화자와 동일한 영역 속에 들어 있다. 서로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지만 화자가 내보낸 의사소통 의도를 청자가 알아차렸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자의 삼각형에서 청자는 다시 실세계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청자로부터 나온 특정한 반응을 확인해야 할 실세계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이 일차적으로 화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듯하다. 이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경우에만 그러하다. 만일 의사소통을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자의 축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화자에게 언제나 청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의도를 가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놓는다. 언어 교육에서는 이런 측면을 포괄적으로 ‘난관 타개하기’로 부른다.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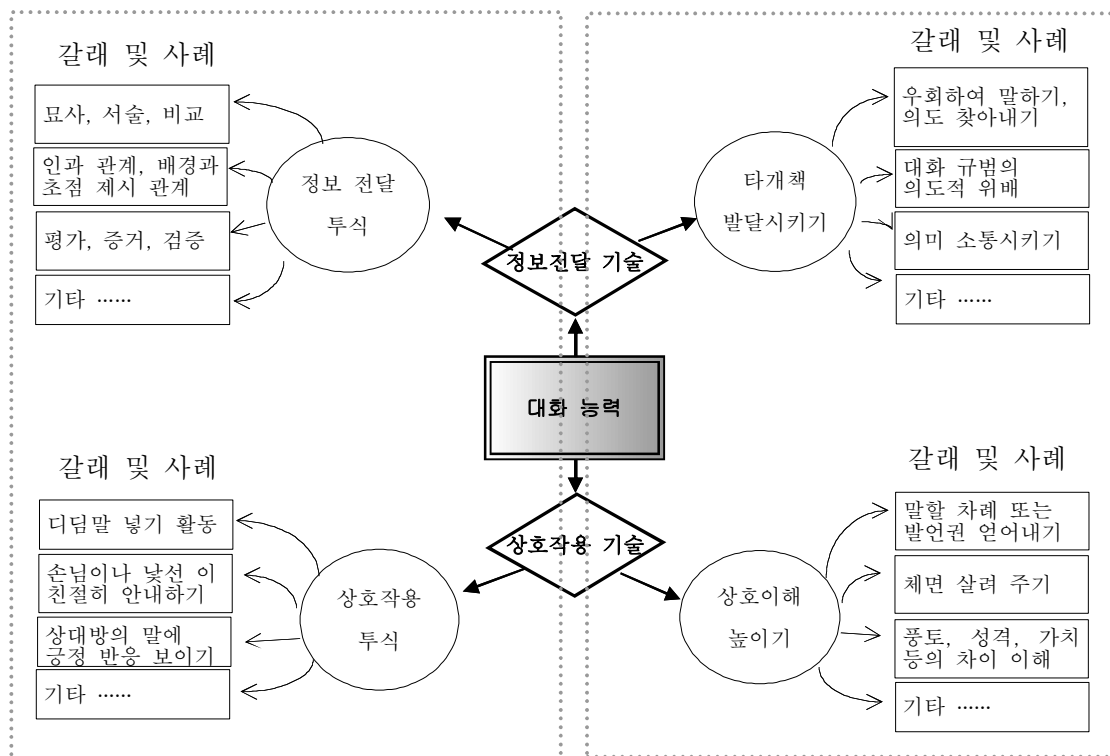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언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언어 사용의 네 가지 측면 가운데에서, 다만 예시를 위하여 말하기 영역을 언급하기로 한다. 특히, 말하기 영역에서 대화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하여 과제를 등급으로 나눠 주는 소략한 원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⁵⁵⁾ 여기서는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육 지침서’의⁵⁶⁾ 내용과 필자가 생각하는 내용을 한데 아우르기로 한다. 그 언어교육 지침서의 밑바닥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정형화된 언어 형식을 연습한 뒤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모저모로 타개해 나가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정형화된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쉽게 말하면, 모방을 먼저 하고, 창조를 해야 한다는 말에 다를 아니다. 이런 상식을 좀더 학술 용어답게 쓰기 위해서 언어교육 지침서에서는 ‘routines’(정형화된 투식 연습)와 ‘negotiations’(난관 타개하기)를 만들었다. 정형화되어 있는 언어 투식이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전혀 정보 간격

55) 언어 교육에서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토박이 중학생 화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 전달용’ 말하기를 등급화해 놓는 원리가 Anderson, Brown, Shillock, and Yule(1984) 『Teaching Talk: Strategies for Production and Assessment』 (Cambridge Univ. Press)로 출간되었다. 이는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과제 중심 언어 교육(TBLT)에서는 중요한 업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난이도를 줄이고 높여 가는 자세한 등급화 원리는 그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다만 어떤 영역을 다뤄나가야 할지를 놓고서 다뤄 나갈 것이다.

56) 범문사에서 『발음』, 『문법』, 『어휘』, 『담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언어 학습에서의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실 상호작용』, 『Syllabus의 구성과 응용』 등 모두 12권이 번역 출간되었다.

(information gaps)이 많지 않고, 따라서 대화 전개 과정이 누구에게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류들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연습을 통해서 제대로 체득된 뒤에는, 정보 간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연습해 나가야 한다. 정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동원되고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의사소통 간격을 줄여 나간다고 말한다. 입말 의사소통은 이런 해결 과정에서 시간상의 압박감(time pressure, 제 시간에 응대를 잘 해냄)이 더 들어가 있는 연습 활동이다. 정보 간격과 시간상의 압박감은 서로 공모 관계에 놓여 의사소통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간다.



<그림 6> 말하기에 대한 단계별 지도 내용 (산출 연습의 갈래와 위계)

<그림 6>에서 대화 능력을 나누어 놓는 두 가지 영역은 브라운·윌(Brown and Yule 1983)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칸은 정형화되어 있는 투식들을 가리키며, 오른쪽은 어려운 타개해 나가기 활동을 가리킨다. ‘언어교육 지침서’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이 도입된 개념이다. 전자에는 대화 전개 과정들이 충분히 화자와 청자 사이에 예측 가능한 사례들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평가의 잣대는 정확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그렇지만, 후자에는 정보 간격이 얼마만큼이든 반드시 들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해야 할 일은 그 정보 간격이 무엇인지를 화자가 미리 잘 가늠해 내거나, 아니면 청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 간격을 탐색하여 알아내는 일이다. 이어서 화자는 그 간격을 줄이거나 좁히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은 결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다. ‘시도·좌절·재시도’의 반복 과정이며, 그 진행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평가의 잣대는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응용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칭하여 능통성 또는 유창성이라고 부른다.

각 칸 속에 들어 있는 ‘갈래와 사례’는 두 가지 진행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용수철을 세워 놓은 것과 같이, 칸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계속 진행되어 더 높은 과제들로 나아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 칸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더 세분화되고 심화된 과제들을 연습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기타...’라고 표시한 것은 오직 예시를 위해 몇 가지만 들어 놓았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비록 머릿속으로 과제를 위계화하기 위한 이런 단계들을 열개 형식을 빌려 영성하게 짜놓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언어 행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이다. 교사의 적절한 반응이야말로 학습자의 동기를 북돋우고 도전 정신을 키워 주는 원천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 비록 어떤 고정된 열개가 미리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 반응에 따라서 능태능소 그 열개에 변형을 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 학습이 기계적이거나 본능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미리 변동의 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개별 학습자들의 반응을 정확히 예상해 놓을 수는 없다. 학습자의 반응 또한 자유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학습자의 자발성과 동기에 초점을 모으고, 교사와 급우를 향하여 두 방향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언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교재들이 마련되려면, ‘과제 중심’ 언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김수업(2005) 『국어 교육의 바탕과 속살』 나라말

김수업(2006) 『배달말 가르치기』 나라말

Clark, H.(1996) *Using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x, B.(1995) *Cox on the Battle for the English Curriculum*, Hodder & Stoughton.

Cook, Guy ed.(1995) *Principle and Practice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Grice, P.(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Kintsch, W.(1998) *Comprehension: A paradigm for cogn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elt, W.(1989) *Speaking: From Intention to Articulation*, MIT Press

Levelt, W.(1999) 「Producing spoken language: a blueprint of the speaker」, in Brown and Hagoort eds. *Neurocognition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p. 88~122

Moore, G.(1903, 2003 revised) *Principia Eth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yake, A. and P. Shah eds.(1999) *Models of Working Mem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ssell, B.(1903, 1996 reissue) *The Principle of Mathematics*, Norton

Widdowson, H.(2004) *Text, Context, Pretext: Critical Issues in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초록>

언어와 언어 사용에 대한 자각

언어 교육에서는 적어도 언어에 대한 자각과 언어 사용에 대한 자각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두 측면의 자각은 먼저 복합적인 사건 더미의 연속체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대상으로 절편들을 만들어 낱개의 정보로서 기억을 하게 된다. 언어는 형식과 내용의 비자연적 결합으로서, 소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낱말과 구절과 문장/발화와 덩 잇말/덩잇글로 단위가 확장되어 나간다. 이들을 묶어 주는 밑바닥의 동인은 화자/필자의 '의도'이다. 사용에 대한 깨우침은 우리가 자유 의지를 지닌 주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계를 설명하는 인과율로는 적절히 다뤄질 수 없다. 대신 전형성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 범위를 제한하거나, 제약 만족의 모형을 상정해 줌으로써 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다. 언어 사용의 일례로서 말하기 교육은 '정보 전달용/친분 쌓기용' 말하기와 '정형화된 투식/새롭게 난관 타개하기'의 축이 가로와 세로로 엮이어 등급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아울러 언어 산출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언어심리학 연구에 대해서 르펠트(1989)와 킨취(1999)를 중심으로 함께 개관되었다.

<주제어> 언어와 언어 사용에 대한 자각, 언어 교육, 의도, 낱말, 문장, 덩잇글/덩잇말, 의사소통, 말하기 등급화 원리, 언어의 산출 및 처리

<Abstract>

Awareness of Language and its Use

Jee-Hong Kim(Gyeongsang Nat'l Univ.)

This article asserts that we should have awareness of language and its use, at least, so as to teach/learn a language in an appropriate way. A number of representations of different aspects of communication are presented which may help students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to gain a broad map of what communication is. These representations show how cognitive knowledge structures develop as a result of our daily experiences. Human intentions are rooted in these schemata, and are manifested either in language, and/or in actions. Language can be either explicit or implicit. Similarly, actions can also be either obvious or ambiguous. Whether the intention is realized explicitly or implicitly, in either case, the participants need to decode the speaker's intention. Communication is normally described as having at least two functions: transactional and interactional. The former assumes the necessity to bridge an information gap existing between the participants, whereas the latter is related to either face-saving or face-threatening acts. In verbal communication, language units can extend from a single word, to a sentence, and even to a whole text. The length of each unit is closely related to how much information is shared between the participants. To improve conversation competence, it is proposed that conversation practice tasks can be graded along two dimensions: interactional/transactional, and routines/negotiations. The psychological processes in languag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are also introduced, in particular with reference to Levelt(1989) and Kintsch(1999) respectively.

<Key Words> language, language use, communication, intention, word, sentence, discourse, awareness, speech task grading principles, language production and processing